



■ 연구보고서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 최새은 · 이상균 · 하태정

【책임연구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둘째자녀 출산계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빈곤에 대한 대안적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최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발행일 2013년
저자 정은희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61-1 93330

발간사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0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동빈곤율의 감소가 빈곤아동의 삶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아동빈곤율의 변화는 낮은 소득계층의 출산률 변화 및 중위소득의 감소로 인해 빈곤층의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과 같은 지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빈곤이라는 현상은 생활상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결핍이나 박탈을 포함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화폐적인 지표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파악하기에는 빈곤한 집단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빈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빈곤지표를 사용하여 빈곤집단을 규정 및 유형화하고 각 빈곤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집단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빈곤집단들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발달 및 아동양육환경의 차이를 탐색하고 우리나라 아동빈곤정책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향후 아동빈곤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정은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최새은 부연구위원, 하태정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이상균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이현주 연구위원, 김미숙 연구위원, 덕성여자대학교 정선옥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권지성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 | |
|-------------------------------|-----------|
| Abstract | 1 |
| 요약 | 3 |
| 제1장 서 론 | 7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15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7 |
| 제1절 빈곤의 정의 | 19 |
| 제2절 다차원적 빈곤 | 23 |
| 제3장 다차원적 아동빈곤 | 29 |
| 제1절 다차원적 아동빈곤 집단 규명 | 31 |
| 제2절 다차원적 아동빈곤 집단간 특성 비교 | 47 |
| 제4장 빈곤집단 아동의 특성 | 57 |
| 제1절 빈곤과 아동발달간의 관계 | 59 |
| 제2절 빈곤의 시간차원과 아동발달 | 69 |
| 제3절 빈곤집단별 아동발달 특성 | 75 |
| 제4절 소결 | 86 |

| | |
|-----------------------------------|------------|
| 제5장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특성 | 89 |
| 제1절 주요 아동빈곤 정책의 내용 | 91 |
| 제2절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주요 특성 | 103 |
| 제3절 소결 | 112 |
| | |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17 |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19 |
| 제2절 이론적 함의 | 121 |
| 제3절 정책적 함의 | 122 |
| | |
| 참고문헌 | 127 |
| | |
| 부록 | 135 |

표 목차

| | |
|---|-----|
| 〈표 3-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36 |
| 〈표 3- 2〉 분석대상가구의 특징 | 38 |
| 〈표 3- 3〉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I) | 40 |
| 〈표 3- 4〉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II) | 41 |
| 〈표 3- 5〉 조건부 응답확률 및 집단별 사례할당비율 | 42 |
| 〈표 3- 6〉 가구특성별 집단 간 특성 차이 | 47 |
| 〈표 3- 7〉 학력 및 소득수준별 집단 간 특성 차이 | 48 |
| 〈표 3- 8〉 가구의 어린 시절 경제적 수준과 가구주 부모의 학력수준별 집단 간 특성 .. | 50 |
| 〈표 3- 9〉 지역, 계층 및 건강상태별 집단 간 특성 차이 | 52 |
| 〈표 3-10〉 다항로짓분석 결과 | 53 |
| 〈표 4- 1〉 샘플 특성(가중치 분석) | 76 |
| 〈표 4- 2〉 변수 특성 | 77 |
| 〈표 4- 3〉 집단별 인지발달 차이(가중치 분석) | 78 |
| 〈표 4- 4〉 집단별 아동특성(가중치 분석) | 80 |
| 〈표 4- 5〉 집단별 아동특성(가중치 분석) | 82 |
| 〈표 5- 1〉 드림스타트센터 규모 | 91 |
| 〈표 5-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학교 현황 | 94 |
| 〈표 5- 3〉 아동발달계좌 지원대상 현황 | 102 |
| 〈표 5- 4〉 복지대상별 1인당 복지에산비용(2011년) | 105 |

부표 목차

| | |
|----------------------------|-----|
| 〈부표 1〉 아동이 없는 가구의 특성 | 13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3-1] 잠재집단에 따른 박탈영역별 조건부 응답확률 | 45 |
| [그림 4-1] 빈곤집단별 영어성적 | 79 |
| [그림 4-2] 빈곤집단별 학교스트레스 | 81 |
| [그림 4-3] 빈곤집단별 자살생각 | 82 |
| [그림 4-4] 빈곤집단별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 | 83 |
| [그림 4-5] 빈곤집단별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 | 85 |
| [그림 4-6] 빈곤집단별 부모의 정서학대 수준 | 86 |
| [그림 5-1]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체계 | 93 |
| [그림 5-2] Wee프로젝트 운영체계 | 95 |
| [그림 5-3] 영국의 아동빈곤율 퇴치 목표 및 정책 방향 | 104 |
| [그림 5-4] 현물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연계를 통한 아동빈곤 개입전략 | 107 |
| [그림 5-5] 아동빈곤퇴치를 위한 기본전략 | 109 |
| [그림 5-6] 빈곤아동정책의 통합적 추진접근 | 110 |

Abstract <<

Aspects of Child Povert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child poverty using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dicators in Korea with the 7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 from the Latent Class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two types of child poverty group in Korea. The first group is classified as households with children who spend a large share of payment for the rental houses from their cost of living. The second group is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who have a variety of deprivation in their lives such as food insecurity, bad housing (but low burden from the payment of rental houses), unstable job security of householder, and so forth.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outcomes of children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across each type of poverty group. Generally, the second poverty group has worst outcomes in child development and parental investment. This result, however,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because of data limitations.

To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child poverty policy in Korea, researchers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policy for the children in Korea and the relativ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are suggeste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기의 빈곤이 아동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빈곤 가구의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가능성이 높아,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규모는 소득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은 빈곤 아동의 실제 삶의 실태를 나타내기 어렵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2006년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낮아진 아동빈곤율만으로 아동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소득기준의 빈곤율은 소득 계층별 출산율의 변화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증감 격차에 따라 실제 빈곤 규모를 왜곡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삶의 실태를 나타내는 여러 차원의 박탈 지표들을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 차원의 박탈지표를 통해, 아동 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고 빈곤집단 유형별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유형화한 아동빈곤집단의 구조를 파악하고 집단유형별 아동특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주요 연구결과

여러 차원에서 겪는 생활상의 박탈지표들을 이용하여 아동빈곤집단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잠재 집단은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빈곤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으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집단은, 주거비 부담은 높지 않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과,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겪을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빈곤 집단은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집단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집단별 아동특성을 탐색한 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의 아동이 인지발달 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성취 수준을 보였으나,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빈곤 집단이 다차원 박탈집단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영역에서는 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이 다차원 박탈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 번째,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동질한 단일 집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거비과부

담 집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집단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임대료 보조와 같은 정책들은 비교적 넓은 소득계층에게까지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 7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과 소득기준의 빈곤 아동가구의 비율이 전국데이터에서 나타난 비율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은 소득기준의 빈곤율 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의 빈곤율은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들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실제 빈곤아동집단을 과소추정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네 번째, 빈곤가구를 위한 정책은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을 보충하는 기존의 빈곤 정책뿐만 아니라 각 박탈 영역에 대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빈곤 정책은 빈곤 가구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박탈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빈곤정책은 장기적인 목표가 부족하다. 2013년에 수립 예정인 아동복지기본계획과 함께 빈곤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및 교육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의 다차원적인 문제와 더불어 아동에게 부정적 발달산물을 야기하는 빈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아동빈곤, 다차원적 박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빈곤¹⁾의 특성을 다차원적 영역에서 생활상의 박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ncan & Brooks-Gunn, 1997). 또한 빈곤 가구의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가능성이 높아,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다(Becker, 1981; 1993; Wilson, 1987).

통계청의 아동빈곤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대적 빈곤율은²⁾ 10%에서 8.6%로, 절대적 빈곤율은³⁾ 7%에서 6.4%로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문길 외, 2012).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만으로 볼 때 빈곤아동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아동빈곤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이라는 용어를 혼용 사용하였다. 특별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동기의 빈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 등의 용어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2) 가처분 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1인 가구가 포함된 수치이다.

3) 정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며,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이다.

첫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은 아동의 빈곤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중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낮아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은 빈곤집단의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의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의 감소는 빈곤한 아동의 삶을 특성들을 보여주지 어렵다. 아동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아동가구의 구성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가구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감소가 낮은 소득계층에서 이루어진다면(김은정, 2013) 지표상 아동빈곤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빈곤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은 빈곤 아동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빈곤연구의 대부분은 소득과 같은 단일차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빈곤한 가구의 아동은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지만 소득빈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소득이외의 다양한 차원에서 빈곤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아동빈곤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목표는 빈곤아동의 실제 삶의 실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의 삶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삶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소득빈곤으로 파악이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빈곤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빈곤의 경우에는 가구 내 소득이 높아도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또한 가구 내 소득이 낮다고 하여도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열악하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은 빈곤이라는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아동빈곤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측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기초생활욕구의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한다(Johnson & Smeeding, 2012).

해외에서의 다차원적 빈곤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이현주 외, 2012). 성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집단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및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빈곤집단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접근은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특성이나 그 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더구나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있는 가구가 겪는 ‘생활상의 궁핍’을 여러 차원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욕구와 어려움은 차이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는 시점이지만, 미래의 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빈곤 가구의 실제 생활상의 궁핍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아동빈곤의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아동빈곤 연구에서 다차원적 빈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빈곤의 원인과 개념에 대한 접근들을 소개하여 다차원적 빈곤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소득을 통한 빈곤접근만으로는 실제 경험하는 빈곤의 실상을 나타낼 수 없고, 소득빈곤은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 왜곡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빈곤에 대한 소득 중심적 접근들의 단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아동빈곤접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차원적 빈곤 논의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방법에 대한 기술과 구성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연구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빈곤에 대한 정의를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하여왔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정의를 소개한다.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사용된 빈곤의 정의에 대한 장단점 논의를 통해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과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먼저 제3장에서는 첫째,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잠재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 하고자한다. 제 4장에서는 유형화한 빈곤집단별로 아동발달 지표상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 7차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는 아동빈곤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대표성과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일단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결핍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아동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욕구와 실제 생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복지패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은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하여 빈곤가구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자료는 빈곤가구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결핍들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아동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결핍 뿐 아니라 가구주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아동의 생활상의 결핍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복지패널자료는 빈곤가구가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결핍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더불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결핍에 대한 정보 또한 일부 존재한다. 셋째, 제7차 한국복지

패널자료는 아동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아동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특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복지패널은 기타 다른 데이터보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특성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 분석샘플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총 가구는 5,731 가구이다.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608 가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샘플은 1,608가구이다. 잠재집단분석 이후에 아동부가조사를 통한 빈곤 집단별 아동 특성을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단위는 아동이며, 총 샘플은 아동부가조사에서 조사를 완료한 512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분석방법

현재의 빈곤을 소득 이외의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하는 생활상의 어려움 이라고 할 경우에는 분석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빈곤집단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각각의 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기법이 있다. 판별분석, 요인분석, 잠재집단 분석기법 등이 있다. 그러나 다차원적 변수 구성에 필요한 변수는 대부분이 범주형이며 빈곤집단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재집단분석 기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빈곤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⁴⁾ 다음으로, 빈곤집단을 규명한 후에

4) 잠재집단분석기법에 대한 보다 제시한 논의는 절을 따로 할애하여 추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이전세대의 빈곤이 현재의 각 빈곤집단에 속할 확률을 조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분류된 빈곤집단의 수에 따라 집단수가 3개 집단 이상이라면 다항로지스틱스 분석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규명된 집단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분석할 경우에는, ANOVA 및 Sheffe-test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기존의 빈곤연구는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의 집단이라는 기준으로 빈곤집단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여기고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조금 더 확장해서 시간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빈곤에 오래 머무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도 본질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빈곤이라는 현상이 다차원적이라면,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빈곤집단을 단일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대상자들이 매우 다른 특성을 가졌음에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빈곤집단의 특성들을 요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현주 외(2012)는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빈곤집단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현주(2012)의 연구는 성인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빈곤집단을 규명하고 있다. 아동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대부분 성인부모가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인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어려움과 아동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

한 차이로 인해 아동의 생활상의 욕구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생활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빈곤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빈곤연구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득 중심적 아동빈곤연구를 다차원적 빈곤연구로 확대한 점과, 성인가구 중심의 빈곤연구를 아동 중심적인 시각으로 아동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조명한다는 점이다. 또한 성인빈곤 집단과는 다른 아동 빈곤집단을 규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빈곤집단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빈곤집단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빈곤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빈곤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아동빈곤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아동빈곤에 대한 정책 또한 빈곤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아동빈곤 집단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빈곤의 정의

제2절 다차원적 빈곤

2

이론적 배경 <<

제1절 빈곤의 정의

빈곤(poverty)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중요한 사회 이슈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은 빈곤에 대한 각자의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을 제시해왔다.

빈곤은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며 각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태진 외, 2011). 이는 아름다움(美)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이 빈곤 역시 하나의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Orshansky, 1965).

우선 빈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 욕구는 협의의 의미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욕구, 광의의 의미로는 공동체 내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하기 위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브리태니커, 2013).

1. 절대적 빈곤

빈곤의 개념은 기본적 욕구의 내용 및 특성과 더불어 충족의 정도와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이태진 외, 2011), 핵심은 자원이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여유진 외, 2005; Saunders, 2004). 따라서 빈곤은 필요한 자원과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측정되어 왔다. 먼저 절대적 빈곤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서 Rowntree(1901), Orshansky(1965)의 연구에서 사용되면서 개발되었고, 현재 미국 사회의 빈곤선은 이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김태성과 손병돈, 2002; Orshansky, 1965; Rowntree, 1901). 절대적 빈곤은 신체적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로서 흔히 언급되는 의식주 상에서의 결핍의 문제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신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의 종류와 개념은 시대적, 역사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 빈곤 개념만으로는 빈곤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김기환, 1997). 이에 따라 신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빈곤층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염두에 두고 빈곤의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김기환, 1997).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무게를 두고, 전체 국민의 복지나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저소득층을 판단함으로써 빈곤을 정의 내린다(김태성과 송병돈, 2002; 여유진, 2005). 상대적 빈곤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방법으로 먼저 평균 소득이나 중위소득의 비율을 보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여 Abel-Smith & Townsend(1965)는 그들의 연구에서 평균소득의 50%와 6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였고, Rainwater(1974)나 Lansely(1980)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보기도 하였다(김태성과 손병돈, 2002), 이외에도 한 사회의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 이하, 예를 들어 하위

10% 혹은 20%를 빈곤선으로 보는 방법과 Townsend(1979)에 의해 제시된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의 부족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측면들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하고 정의내리는 방법이 있다(김태성과 손병돈, 2002).

3.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준을 갖고 빈곤을 정의내리는 반면, 주관적 빈곤은 빈곤에 처한 당사자가 체감하는 수준에서 빈곤을 정의 내린다.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행복감 등 개인이 느끼는 욕구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자가 느끼는 빈곤감은 다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여유진 외, 2005). 따라서 절대적 빈곤선이나 상대적 빈곤선과 같이 일정한 소득 수준만을 갖고서 빈곤을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며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빈곤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4인 가족(부모와 두 자녀)이 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비용이 얼마인지를 설문하여 얻은 액수를 평균 산출하여 결정한다(김태성과 손병돈, 2002). 또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mimum income)이 얼마인가를 묻고, 응답한 최소소득과 실제 소득(actual income)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김태성과 손병돈, 2002; Goedhart et al., 1977; Pruay, 1980).

살펴본 바와 같이 위의 빈곤개념들은 각자 다른 개념의 빈곤을 정의하지만 실제 측정은 모두 화폐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빈곤선을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

에 대한 한계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이현주 2012; Nolan & Whelan, 2010: 319-320; Perez-Mayo, 2005). 먼저, 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은 생활상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같은 경제적 수준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조건들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빈곤기준선을 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어느 집단은 생활상의 자원결핍으로 인해 빈곤한 상태일 가능성 또한 있다(이현주, 2012). 다음으로는, 소득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모두 금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화폐적 차원을 포함한 빈곤 측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Perez-Mayo, 2005).

Bradshaw & Richardson(2008)은 EU 국가비교시 소득빈곤과 가장 밀접한 지표는 물질적 복지차원임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빈곤갭이나, 박탈, 가장의 실업보다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득빈곤은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상태를 30%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박탈과 관련한 지표가 전반적인 복지와 보다 강한 관계($r=0.73^{**}$)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박탈이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의 53%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에서는 소득빈곤이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와 유의하게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소득빈곤과 생활영역에서의 박탈간의 중첩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소득빈곤이 생활영역에서 박탈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이현주 외, 2012). 또한 빈곤이라는 현상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소득만으로는 빈곤집단이 경험하는 빈곤이라는 현상을 대표하기에도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실제 빈곤집단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생활상의 결핍 또는 박탈을 이용하여, 빈곤의 특성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다차원적 빈곤

1. 다차원적 빈곤 개념

다차원적 빈곤 개념은 Rawls(1971)의 정의론에서부터 Townsend (1979)의 사회적 배제 접근을 거쳐 Doyal & Gough(1991)의 기본욕구 일람표와 Sen(1979, 1992) 실현능력접근까지 해외에서의 는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어오고 있다.

Rawls는 기본재의 최저수준이 개인의 평등을 확보해준다고 하였으며, 기본재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재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기본재가 무엇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개인이 속한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재를 측정하는 방식은 기본재에 대한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화폐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화폐적 가치로 전환된 기본재의 측정은 빈곤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빈곤한 생활상을 반영하기 어렵다.

Townsend는 일반적인 삶이나 관습 및 활동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배제된 것을 결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매우 추상성이 높아 이를 정의하는데 대한 합의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즉, 사회적 배제란 ‘한 사회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Hills et al., 2002).

Doyal & Gough는 인간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Doyal & Gough에 의하면 빈곤은 기본적인 일련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된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욕구일람표에서 제시된 욕구는 기초 욕구(Basic need)와 중간욕구(Intermediate need) 둘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욕구는 개인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욕구로 정의되며, 신체건강(Physical Health)과 자율성(Autonomy) 둘로 제시하고 있다. 중간욕구는 개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욕구로 표현하고 있으며 11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11개의 지표는 1) 균형 잡힌 음식과 깨끗한 물, 2) 적절한 주거, 3) 근로환경, 4) 물리적 환경, 5) 의료보호, 6) 안전한 아동기의 보장, 7) 지지집단, 8) 경제적 안전, 9) 건강, 10) 교육, 11) 안전한 임신과 피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배제 접근은 실현능력 접근과 함께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많이 차용되는 접근 중 하나이다. Sen(2000)은 사회적 배제접근은 관계라는 측면을 강조한 실현능력접근의 한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배제접근이 실현능력접근에 수렴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Sen(1979)의 실현능력 접근은 부와 재화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발전방향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거나(beings) 실제로 할 수 있는(doing) 그러한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빈곤은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스스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실현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규정된다(Robeyns, 2005). 실현능력접근에서 주의할 점은 수단이나 도구로서 소득, 재화, 자원은 실현능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즉, 소득이나 자원과 같은 도구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상태나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소득 수준이나 자원이 달성된 상태를 수단으로 보아야하는지 목적이 달성된 상태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자

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나 자원의 확보정도는 실현능력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주 외, 2012).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한 접근이 주를 이룬다(이현주 외 2012). 사회적 배제접근을 이용한 연구는 박병현과 최선미(2001), 신명호(2003), 강신욱 외(2005)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빈곤집단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배제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을 이용한 빈곤연구가 주를 이룬 상황에서 빈곤집단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다차원적 빈곤 지표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가용한 데이터에 구성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지표가 선정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Hicks(1998)의 경우에는 인간의 기초욕구를 영양, 교육, 주거, 의료, 물, 위생에서 최소한의 수준 이하를 빈곤하다고 보고 소득 이외의 차원에서 빈곤을 측정하였다. 특히 주거분야에서의 박탈이 빈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빈곤이 주거비 과부담 집단보다 빈곤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Mimura, 2007). 이러한 차이는 그 사회 내에서 빈곤집단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사회 내에서 주거에 대한 정책이 다른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집단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소시킨다면 그 사회 내에서 빈곤집단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의 종류

와 질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과 관련한 정책은 소득보장 정책에 비해 취약하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집단의 경우, 다른 소비에 제약이 따르며,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기타 교육이나, 문화생활, 식생활 및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지출에 한계를 가할 수 있다. 알려져 있듯이, 교육과 문화생활 및 식생활 영역에서의 결핍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빈곤을 자녀세대에게 세습하게 할 가능성 또한 높다(김위정과 김왕배, 2007; 박문수와 하성균, 2000; 이상은, 2008).

다차원적 빈곤지표 설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접근은 앞서 논의된 Doyal & Gough(1991)의 기본욕구 접근일 것이다. 이들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가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고, 기본욕구의 불충족이 빈곤한 상태임을 제시한다. 즉, 인간은 식생활, 주거, 근로, 의료, 경제적 안정, 건강, 교육, 환경 및 피임 출산 및 아동기 욕구와 같은 분야에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빈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욕구의 목록이 어느 사회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기본욕구목록을 이용한 연구자들 또한 동일 목록을 적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하기 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식생활 영역에서 안전한 물의 경우, 남미나 아프리카지역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 그 사회에서 빈자들이 겪는 심각한 결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물에 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다차원적 빈곤 지표선정은 그 사회 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현능력 접근을 이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지표

를 구성하고 있다. 최균 외(2011)는 실현능력접근을 이용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영역만을 선정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최균 외(2011)의 연구에서 지표는 크게 화폐적인 측면과 비화폐적인 지표로 분류하고 있다. 화폐적인 지표로는 소득/소비와 자산으로 나누고, 비화폐적인 지표는 교육, 주거, 영양과 물,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관계, 피임과 출산 및 육아, 안전한 아동성장, 취업안정, 신체적 안정, 노동환경, 시민정치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 건강, 근로능력, 가족/사회적 관계 및 사회보장의 6개 지표를 이용하여 다차원적인 빈곤을 측정하고 있다.

이현주 외(2012)는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주거, 교육, 의료, 근로 및 금융 5개의 기본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서의 박탈과 지출 과부담을 영역별 빈곤으로 규정하고(근로 및 금융의 경우는 지출 과부담을 이용하지 않음) 있다. 이현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박탈지표와 지출 과부담 지표들을 중심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이 연구 또한 데이터가 제공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지표 선정이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빈곤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1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아동빈곤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보고된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는 교육, 신체발달, 인지자극, 의생활, 식생활, 주거환경, 건강영역 및 놀이영역으로 나누어 14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을 측정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지표선정방법으로 제안되는 방식은 한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지표여야하고, 국가 및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다(Alkire, 2002).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차원적 빈곤지표와 관련하여 합의된 일람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표 선정시 가용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지표들만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지표들은 존재한다. 합의된 지표는 아니나,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혹은 필요한 욕구라고 인식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로는, 주거, 교육, 의료, 영양과 관련한 것이다.

빈곤의 지표에 대한 선정이 완료되면 다차원적인 빈곤집단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빈곤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다(Dewilde, 2004; Dewilde, 2008)고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집단을 규명하는데 명확하게 빈곤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러 차원의 빈곤지표를 사용하여 각 차원에서 빈곤한 집단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2개 또는 3개 차원에서 빈곤한 집단을 다차원적인 빈곤집단으로 규정하여 빈곤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빈곤집단 구분은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같이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어, 빈곤집단은 동일한 집단처럼 규명하는 한계를 가진다(이현주 외, 2012). 즉, 2개의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빈곤한 다차원적 빈곤집단이라 하더라도 빈곤그룹을 구성하는 집단의 특성은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



제3장 다차원적 아동빈곤

제1절 다차원적 아동빈곤 집단 규명

제2절 다차원적 아동빈곤 집단간 특성 비교

3

다차원적 아동빈곤 <<

제1절 다차원적 아동빈곤 집단 규명

성인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빈곤집단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빈곤집단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가용 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크다. 빈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된다. 이 두 가지 자료 모두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과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의 비율이 낮은 단점들이 있다.

그러나 앞서 연구방법에서 기술하였듯이, 한국복지패널은 빈곤가구 과대 표집, 여러 차원의 생활상의 박탈 지표 및 제7차 아동부가 조사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에 관한 특성을 탐색하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 중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7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이 있는 1,608 가구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빈곤아동집단을 규명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빈곤의 다차원성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집단에 대한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다차원적 빈곤집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다. 기존의 각 영역별 지표에서 빈곤선을 설정하고 두 개 또는 세 개 영역 이상에서 빈곤이면, 다차원적 빈곤집단이라고 규명한 연구들 역시 빈곤집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잠재적 집단분석은 관찰하기 어려운 집단을 관찰된 변수를 통해 규명

하는 분석방법이다(이재열 외, 2005).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 기법이 있다. 군집분석은 집단의 수를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연구자가 임의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잠재집단 분석은 집단의 수를 미리 가정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유형의 빈곤집단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집단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화폐적인 차원에서 소득빈곤집단에 대한 논의와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빈곤집단 유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집단은 빈곤한 집단으로 분류한다던가, 이러한 소득빈곤이 장기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생활상의 박탈을 고려하여 빈곤집단을 유형화하고 그 집단의 수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집단에 대해 알려진 변수들로 탐색적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고, 그 규모와 특성들을 파악하기에는 잠재적 집단분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에도 집단을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요인분석은 관찰된 변수들이 범주형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분포에 대한 가정도 엄격하다(Dewilde, 2004). 이와는 반대로, 잠재집단 분석의 경우에는 변수 및 분포에 대한 가정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들이 있다. 박탈과 관련된 변수들이 범주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요인분석을 통해 집단을 유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잠재적 집단분석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집단을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빈곤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빈곤집단이 하나일 때

모델 적합도의 값과, 집단을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산출된 모델 적합도를 비교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로 집단을 수를 정하여 집단을 규명하는 군집분석보다는 집단 수 결정에 통계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집단을 잠재적 집단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밝혀진 잠재집단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1. 차원별 지표선정

아동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아동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기에 성취해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차원구성을 이루어야 한다. 아동기에는 건강과, 주거, 식생활, 교육, 의생활 및 놀이 영역에서의 욕구 충족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된다(Uniceff, 2012). 특히, 건강, 주거, 교육, 식생활과 관련한 영역은 많은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욕구로 제시하고 있다(이현주 외, 2012; 최균 외, 2011; Doyal & Gough, 1991).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영역을 포함하여 이현주 외(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고용, 근로 및 금융과 관련한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동이 생활하는 가구의 주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박탈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박탈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의생활, 사회적 관계망 및 놀이 영역에서의 지표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표로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 영역에서 지표를 이용하여 빈곤집단을 규명하고자한다. 제 7차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는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생활과 관련한 박탈 및 지출 과부담 정보를 제공한다. 주거의 경우에는 주거소유 상태와 주거비 과부담, 주거생활박탈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주거의 소유상태는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Kleinhans et al., 2007), 주거와 관련된 주요 차원으로 선정하였다.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비용이 가구소득의 20%를 차지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규정한다. 주거비 과부담은 과부담을 규정하는 기준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를 3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주거비과부담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25%에서 30%를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규정한다(임세희, 2010). 그러나 주거비 과부담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같은 비율로 주거비 지출을 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타 다른 영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독거가구 및 성인부부 중심의 가구보다 주거비 과부담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가구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의 지출을 더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보수적인 수치인 30%로 상향조정하였다. 주거생활박탈의 경우에는 현재의 주거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난방비를 내지 못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둘 중 하나만 포함되어도 주거생활박탈로 범주화하였다.

식생활 박탈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는 경우, 배고픈데 못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를 식생활 박탈 가구로 범주화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비 과부담 여부만을 이용하였다. 과부담이라는 의미는 앞서 주거비 과부담에서 설명하였듯이, 특정 항목에서의 지출이 가구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 이상 지출로 인해 다른 항목에서의 지출에 부담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교육비 과부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20%에서 30% 범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보편적인 교육제도이므로, 교육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주거비와 관련한 지출보다 그 비율이 낮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육비 과부담은 주거비 과부담보다 낮은 20%를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이 월소득의 20%이상인 경우를 교육비 과부담가구로 범주화하였다⁵⁾.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의료비 과부담과 의료박탈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였다. 의료박탈에는 건강보험을 미납하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거나, 병원갈 수 없었던 경우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의료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서의 과부담 기준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마다, 나라마다 다른 특성이 있으며, 그 범위는 10%에서 40%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보편적이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가처분소득에서 의료와 관련한 지출이 20%를 넘는 가구의 경우를 의료비 과부담가구로 규정하였다.

고용과 관련된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이용하였다.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또는 자활이나 실업의 경우를 1로 범주

5) 이현주 외(2012)의 연구와 이태진 외(2011)의 연구에서도 가처분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를 교육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내리고 있다.

화 하였다. 비경제활동의 경우에는 2,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3, 상용직인 경우에 4로 범주화하였다. 근로능력은 능력의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근로불가능은 1, 근로미약이나 단순근로가능의 경우에는 2, 근로가능의 경우에는 3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박탈의 경우에는 신용불량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변수화 하였다. 사용된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변수명 | 정의 및 측정방법 |
|-----------|--|
| 주거 | |
| 주거소유상태 | 1. 월세 2. 전세 3. 자가 4. 기타 |
| 주거비 과부담 | 1.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30% 이상 0. 30% 미만 |
| 주거생활박탈 | 1. 쫓겨나거나, 난방비 못냄 0. 그렇지 않음 |
| 식생활 | |
| 식생활박탈 | 1. 균형잡힌 식사를 못함 0. 그렇지 않음 |
| 교육 | |
| 교육비 과부담 | 1.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
| 의료 | |
| 의료비 과부담 | 1.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
| 의료박탈 | 1. 건강보험료 못내거나 병원에 못감 0. 그렇지 않음 |
| 고용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 1. 임시, 일용, 자활, 실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
| 근로능력 | |
| 근로능력 | 1. 근로불가능 2. 단순근로미약자, 단순근로가능 3. 근로가능 |
| 금융 | |
| 금융 신용불량 | 1.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된 적 있다 0. 없다 |

3. 분석 대상자의 빈곤지표 범주별 특성

아동빈곤집단을 규명하기에 앞서, 아동이 있는 가구들의 지표별 특성과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2>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직 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불안한 고용형태의 비율이 18.4%로 나타난다.⁶⁾ 상용직인 경우에는 55.5%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빈곤가구가 과대 표집 되어있음에도, 아동가구나 아동빈곤가구가 과소 추정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고용이 안정된 아동 가구의 가구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능력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의 97%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은 노동을 통해서 소득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영역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53.7%이지만, 주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율 또한 낮지 않은 약 41%이다. 주거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부담인 경우의 비율은 13.6%이며, 주거 생활과 관련하여, 난방비를 내지 못하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경우 또한 4.0%를 보이고 있다.

6)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이 없는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상당부분 포착되었다. 즉,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상용직의 비율이 24.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능력의 경우에도 근로미약과 단순근로만 가능한 경우의 비율이 아동이 있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료영역에서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 또한 아동이 없는 가구가 있는 가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소득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보다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기 힘든 노인 가구의 비율이, 아동이 없는 가구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8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표 3-2〉 분석대상가구의 특징

| 구분 (N=1,608) | 비율 및 평균 (SD) |
|--------------------|--------------------|
| 고용 | |
| 임시일용자활사업 | 18.4 |
| 비경제활동 | 6.7 |
| 고용주, 자영, 무급 | 19.4 |
| 상용 | 55.5 |
| 근로능력 | |
| 근로불가능 | 0.3 |
| 미약, 단순근로 | 2.7 |
| 근로가능 | 97.0 |
| 주거소유 | |
| 월세 | 15.3 |
| 전세 | 25.9 |
| 자가 | 53.7 |
| 기타 | 5.1 |
| 주거비 과부담 | |
|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이상 | 13.6 |
| 주거생활 박탈 | 4.0 |
| 교육비 과부담 | |
| 교육비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 | 18.4 |
| 의료박탈 | |
| | 1.9 |
| 의료비 과부담 | |
|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 | 2.4 |
| 신용불량가구원 | 4.9 |
| 식생활박탈 | 3.5 |
| 순자산(만원/년) | 25,033 (42,359) |
| 가처분소득(만원/월) | 449 (275) |
| 상대빈곤 | |
| 중위소득 40% 미만 | 3.5 |
| 중위소득 50% 미만 | 7.3 |
| 중위소득 60% 미만 | 12.0 |

교육비 과부담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만을 한정했을 경우에는 18.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소득 아동가구 뿐 아니라, 일반가구에서 또한 교육과 관련한 지출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박탈의 경우에는 1.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료정책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라는 특징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 또한 2.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의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이용을 하지 않는 비율이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높을 것이다.

신용불량가구원이 있는 경우의 비율은 4.9%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박탈의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균등화한 월 가처분 소득은 449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40%, 50%, 60%로 각각 했을 때의 비율이 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에 의한 빈곤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 했듯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이나 월소득의 경우에는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신용불량 가구원과 식생활 박탈의 경우 실제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잠재적 집단 분석

가. 잠재집단 수

빈곤한 가구의 실제 생활상의 박탈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구성하여 우

리나라의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먼저 집단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집단분석에서 집단의 수는 사전에 집단의 수를 정하지 않는다. 우도비 카이제곱 검정과 Entropy, AIC, BIC 와 같은 적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도비 카이제곱, BIC, AIC 의 경우에는 값이 낮을수록, 추정치와 관측자료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ntropy의 경우에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데 높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0.8 이상인 경우부터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McCutcheon, 1987). LO-MENDELL-RUBIN ADJUSTED LRT 검증의 경우, 집단수가 k-1 개의 모형과 k개일 때의 우도비를 비교하여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한다.

〈표 3-3〉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I)

| 집단수 | Likelihood Ratio χ^2 | df | p-value ¹⁾ |
|-----|---------------------------|------|-----------------------|
| 1개 | 1670.54 | 6077 | 1.00 |
| 2개 | 1714.52 | 6102 | 1.00 |
| 3개 | 1465.51 | 6085 | 1.00 |
| 4개 | 1344.76 | 6065 | 1.00 |
| 5개 | 1336.18 | 6055 | 1.00 |

주: 1)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 사례수에 민감하여 사례수가 많은 경우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McCutcheon, 1987).

〈표 3-4〉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II)

| 집단수 | Entropy | AIC | BIC |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 |
|-----|---------|----------|----------|---------------------------------------|---------|
| | | | | Value | P-Value |
| 1개 | | 12910.15 | 12990.89 | | |
| 2개 | 0.84 | 12292.04 | 12458.91 | 644.65 | 0.465 |
| 3개 | 0.79 | 12072.41 | 12325.40 | 249.52 | 0.004 |
| 4개 | 0.84 | 12015.71 | 12354.82 | 87.96 | 0.366 |
| 5개 | 0.75 | 11982.83 | 12408.07 | 64.33 | 0.620 |

먼저, 우도비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에는, 집단의 개수가 3개인 모형부터 낮아지고 있다. Entropy의 경우에는 4개가 가장 높고(0.84) 다음으로 3개인 집단이(0.79)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LO-MENDELL-RUBIN ADJUSTED LRT 검증 결과, 집단이 3개인 경우와 집단이 4개인 경우에 우도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이 3개인 모형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의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포함하여, 설명 가능성 및 모형의 간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집단이 4개일 경우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도비의 차이가 집단이 3개일 경우를 선호하는데 이는 모형의 간결성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이 4개일 때의 모형은 집단의 3개일 때의 모형과 빈곤집단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즉, 4개의 집단으로 할 경우, 두 개의 집단이 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나,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설명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나.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및 집단별 사례비율

〈표 3-5〉 조건부 응답확률 및 집단별 사례할당비율

| 구분 | 주거비 과부담 | 다차원 박탈 | 비빈곤 |
|----------------|-------------|-------------|-------------|
| 고용형태 | | | |
| 임시일용자활사업 | 0.19 | 0.44 | 0.13 |
| 비경제활동 | 0.03 | 0.32 | 0.03 |
| 고용주, 자영, 무급 | 0.08 | 0.15 | 0.23 |
| 상용 | 0.70 | 0.08 | 0.60 |
| 근로능력 | | | |
| 근로불가능 | 0.00 | 0.03 | 0.00 |
| 미약, 단순근로 | 0.00 | 0.21 | 0.00 |
| 근로가능 | 1.00 | 0.77 | 1.00 |
| 주거소유 | | | |
| 월세 | 0.03 | 0.53 | 0.12 |
| 전세 | 0.98 | 0.18 | 0.09 |
| 자가 | 0.00 | 0.20 | 0.74 |
| 기타 | 0.00 | 0.09 | 0.06 |
| 식생활박탈 | | | |
| 식생활 박탈임 | 0.00 | 0.24 | 0.01 |
| 그렇지 않음 | 1.00 | 0.76 | 0.99 |
| 주거비 과부담 | | | |
| 주거비 과부담임 | 0.46 | 0.24 | 0.03 |
| 그렇지 않음 | 0.54 | 0.76 | 0.97 |
| 주거생활 박탈 | | | |
| 주생활 박탈임 | 0.00 | 0.29 | 0.01 |
| 그렇지 않음 | 1.00 | 0.72 | 0.99 |
| 교육비 과부담 | | | |
| 교육비 과부담임 | 0.19 | 0.20 | 0.18 |
| 그렇지 않음 | 0.81 | 0.80 | 0.82 |
| 의료박탈 | | | |
| 의료박탈임 | 0.01 | 0.11 | 0.01 |
| 그렇지 않음 | 0.99 | 0.89 | 0.99 |
| 의료비 과부담 | | | |
| 의료비 과부담임 | 0.01 | 0.14 | 0.00 |
| 그렇지 않음 | 0.99 | 0.86 | 1.00 |
| 신용불량가구원 | | | |
| 신용불량가구원임 | 0.01 | 0.31 | 0.01 |
| 그렇지 않음 | 0.99 | 0.69 | 0.99 |
| 사례할당비율 | 21.60 | 10.80 | 67.60 |

잠재집단별 특성을 기반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된 박탈 지표별 조건부 응답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건부 응답확률이란 분석대상 가구가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될 경우, 각 박탈 지표의 특정범주에 응답할 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집단을 살펴보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일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표에서는 첫번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비율의 박탈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집단을 주거비 과부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5〉의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잠재집단을 나타낸다. 두 번째 잠재집단의 고용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다른 집단과 달리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활과 같은 안정적인지 않은 고용형태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다(0.44). 주거 소유상태 또한 월세일 가능성이(0.53) 다른 집단에 속할 경우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식생활 박탈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낮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다. 비록 낮은 응답확률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식생활 박탈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확률을(0.24) 보이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집단에 비해 응답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거생활 박탈의 경우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택하는 상황을 포착한 것이라 판단된다. 의료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세 집단 모두 높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앞서 〈표 3-2〉에 잘 나타나 있듯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두 번째 집단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의료비 과부담 및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료보험 수급 자격을 정지 당하는 등의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을 확률 또한 두 번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두 번째 집단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집단은 다차원 박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자가일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박탈과 관련한 지표에서 응답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비빈곤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잠재적 집단 분석결과, 집단의 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 각각 주거비 과부담 집단, 다차원 박탈집단, 비빈곤 집단으로 명명하여 유형화 하였다. <표 3-5>의 마지막 행에 각 집단별 사례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주거비 과부담집단의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6%로 나타나고 있다. 다차원 박탈 집단의 사례비율은 10.80%로 나타났지만, 과소 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빈곤 집단의 사례비율은 67.6%로 나타났다.

[그림 3-1]은 잠재집단에 따라 영역별 박탈범주에 속하는 조건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박탈범주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단별 특성을 이해하기 용이하다.

먼저 주거비 과부담 집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위 그림 상에서 꺾이는 점에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거비 과부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집단인 다차원 박탈집단은 그림 상에서 꺾인 점이 원으로 되어 있는 집단이다. 근로능력과 주거비 과부담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박탈응답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 영역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집단인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비해 응답확률이 낮지만, 나머지 한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집단인 비빈곤 집단은 꺾인 점에 별모양으로 나타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교육비 과부담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른 영역에서 박탈범주에 응답할 확률이 낮다. 교육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 과부담 영역은 집단을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의 유형에 관계없이, 교육비 과부담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다차원적 아동빈곤 집단간 특성 비교

본 절에서는 잠재집단의 유형에 따라 인구 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집단간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Scheffe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6>부터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 가구특성별 집단 간 특성 차이

| 구분 | 평균 및 비율(%)(SD) | | | | F-value | Scheffe ¹⁾ | |
|--------|-----------------|-------------------------|----------------------|-----------------|---------|-----------------------|-----------|
| | 전체 (n=1,608) | 주거비 과부담 (n=1,072) | 다차원 박탈 (n=246) | 비빈곤 (n=290) | | | |
| | | | | | | $p < .05$ | $p < .10$ |
| 가구주나이 | 44.29 (8.26) | 44.25 (7.56) | 50.24 (12.02) | 41.43 (6.28) | 71.56 | 2)1)3 ²⁾ | |
| 여성 가구주 | 7.4 | 4.1 | 33.5 | 4.7 | 110.6 | 1)2)3 | |
| 가구원 수 | 4.0 (0.87) | 4.07 (0.86) | 3.79 (1.04) | 3.89 (0.80) | 11.97 | 1)2)1)3 | |
| 노인 가구원 | 10.7 | 10.2 | 24.0 | 5.7 | 21.17 | 1)2)2)3 | 1)3 |

주: 1) Scheffe test 결과 숫자사이의 부등호 표시는 유의수준 .05와 .10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2)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집단, 다차원 박탈집단, 비빈곤집단을 의미한다.

먼저 <표 3-6>을 보면, 전체 집단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평균 44.3세 나타났으며, 집단에 따라 가구주의 나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차원 박탈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6세

에서 9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도 가구주의 연령이 3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 또한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데, 다차원 박탈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원의 수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1명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내 노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다차원박탈 집단에서 가장 높은 24%이며, 다음으로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며(10.2%) 비빈곤 집단에서 가장 낮게(5.7%)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의 차이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나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다차원 박탈집단의 경우,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과, 가구 내 노인 가구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손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 포함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7〉 학력 및 소득수준별 집단 간 특성 차이

| 구분 | 평균 및 비율(%)(SD) | | | | F-value | Scheffe ¹⁾ | |
|-----------|-----------------|-------------------------|----------------------|----------------|---------|-----------------------|--------------------|
| | 전체 (n=1,608) | 주거비 과부담 (n=1,072) | 다차원 박탈 (n=246) | 비빈곤 (n=290) | | α<.05 | α<.10 |
| | | | | | | | |
| 가구주 학력 | 중졸이하 | 9.4 | 7.4 | 34.8 | 3.1 | 83.86 | 2)1, 3) 1)3 |
| | 고졸이하 | 37.5 | 37.6 | 45.5 | 32.9 | 3.92 | 2)3 1<2 |
| | 대졸이하 | 46.8 | 48.6 | 17.1 | 55.9 | 38.88 | 1)2, 2<3 1<3 |
| | 대학원이상 | 6.3 | 6.3 | 2.5 | 8.0 | 2.98 | 2<3 1)2 |
| 기초보장 | 5.1 | 1.7 | 33.9 | 1.4 | 208.06 | 1<2, 2)3 | |

| 구분 | 평균 및 비율(%)(SD) | | | | F-value | Scheffe ¹⁾ | |
|-------------|--------------------|-------------------------|----------------------|--------------------|---------|-----------------------|--------------|
| | 전체 (n=1,608) | 주거비 과부담 (n=1,072) | 다차원 박탈 (n=246) | 비빈곤 (n=290) | | α .05 | α .10 |
| | | | | | | | |
| 순자산(만원/년) | 25,033 (42,359) | 27,215 (37,196) | 6,474 (17,449) | 27,398 (60,329) | 18.90 | 1>2, 2<3 | |
| 가처분소득(만원/월) | 448 (275) | 480 (271) | 229 (121) | 461 (294) | 67.94 | 1>2, 2<3 | |

주: 1) Scheffe test 결과 숫자사이의 부등호 표시는 유의수준 .05와 .10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2)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집단, 다차원 박탈집단, 비빈곤집단을 의미한다.

<표 3-7>은 집단에 따른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가구주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 중 9.4%가 중졸이하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를 해보면, 다차원 박탈집단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이 .10 수준이기는 하지만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도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의 비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서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비율이 비빈곤 집단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학력인 경우 또한 다차원 박탈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 가구의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이하인 경우의 비율이 4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이하 비율과는 반대로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다차원 박탈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이하의 비율이 유의수준 .10에서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비율 또한 다차원 박탈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 박탈 집단에서 가구주의 학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보장 수급비율을 보면, 다차원 박탈집단에서 수급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두 집단에서도 기초보장 수급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기초보장 수급율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자산과 소득의 경우, 다차원 박탈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가구주의 어린 시절 경제적 수준과 가구주 부모의 학력수준별 집단 간 특성

| 구분 | | 비율(%) | | | | F-value | Scheffe ¹⁾ |
|-------------------|------------|-----------------|-------------------------|----------------------|----------------|---------|---------------------------|
| | | 전체 (n=1,608) | 주거비 과부담 (n=1,072) | 다차원 박탈 (n=246) | 비빈곤 (n=290) | | α .05 |
| 어린시절 경제수준 | 가난 | 34.7 | 34.6 | 45.5 | 29.6 | 6.48 | 1<2, 2>3 ²⁾ |
| | 가난하지 않음 | 65.0 | 65.3 | 52.1 | 70.3 | 8.57 | 1>2, 2<3 |
| 가구주 부의 교육수준 | 초졸 | 47.9 | 49.0 | 61.4 | 37.8 | 13.8 | 2>1>3 |
| | 중졸 | 19.6 | 19.0 | 14.3 | 24.1 | 3.92 | 2<3 |
| | 고졸 | 21.1 | 20.0 | 16.4 | 26.9 | 5.04 | 1>3, 2<3 |
| | 전문대 이상 | 9.6 | 10.2 | 2.8 | 10.9 | 5.18 | 1>2, 2<3 |
|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 초졸 | 66.0 | 68.2 | 78.5 | 52.7 | 21.33 | 2>1>3 |
| | 중졸 | 17.0 | 16.1 | 10.6 | 22.8 | 7.08 | 1<3, 2<3 |
| | 고졸 | 12.7 | 11.6 | 5.7 | 19.6 | 12.05 | 3>1>2 |
| | 전문대 이상 | 2.2 | 2.1 | 0.0 | 3.4 | 3.2 | 2<3 |

주: 1) Scheffe test 결과 숫자사이의 부등호 표시는 유의수준 .0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2)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집단, 다차원 박탈집단, 비빈곤집단을 의미한다.

〈표 3-8〉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의 부모에 대한 특징들을 집단별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가구주의 어린 시절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34.7%가 어린 시절 가난했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차원 박탈집단에서 가구주의 어린 시절이 대체로 가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서 가구주의 어린 시절이 대체로 가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어린 시절이 대체로 가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비빈곤 집단이다. 그러나,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부모의 교육수준 또한 다차원 박탈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 박탈 집단은 이전세대로부터 빈곤을 세습했을 가능성이 높고, 가구주 부모의 교육적 수준도 낮은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3-9〉는 집단별, 지역 및 계층과 건강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경우, 비빈곤 집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비빈곤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다차원 박탈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중간계층이나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차원 박탈집단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다차원 박탈집단이 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성질환 가구원이 있는 비율 또한 다차원 박탈집단이 높게 나타

52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지역, 계층 및 건강상태별 집단 간 특성 차이

| 구분 | | 비율(%) 및 평균 (SD) | | | | F-value | Scheffe ¹⁾ |
|----------------|--------|-----------------|-------------------|----------------|-------------|---------|------------------------|
| | | 전체 (n=1,608) | 주거비 과부담 (n=1,072) | 다차원 박탈 (n=246) | 비빈곤 (n=290) | | $p < .05$ |
| 지역 | 서울 | 18.8 | 15.4 | 18.8 | 29.2 | 16.64 | 1<3, 2<3 ²⁾ |
| | 광역시 | 26.3 | 29.3 | 23.5 | 18.1 | 8.96 | 1>3 |
| | 시 | 48.7 | 48.8 | 51.8 | 46.9 | 0.56 | |
| | 군 | 5.4 | 5.5 | 5.2 | 5.2 | 0.04 | |
| | 도농 복합군 | 0.8 | 0.9 | 0.8 | 0.6 | 0.16 | |
| 주관적 계층의식 | 하층 | 17.7 | 11.4 | 63.2 | 14.4 | 168.36 | 1<2, 2>3 |
| | 중하층 | 35.7 | 35.9 | 27.1 | 39.4 | 3.87 | 1>2, 2<3 |
| | 중간 계층 | 40.7 | 45.7 | 9.5 | 40.5 | 42.69 | 1>2, 2<3 |
| | 상층 | 5.9 | 6.9 | 0.2 | 5.7 | 6.08 | 1>2, 2<3 |
| 주관적 건강상태 (bad) | | 1.24 (0.56) | 1.18 (0.47) | 1.84 (0.86) | 1.14 (0.43) | 128.98 | 1<2, 2>3 |
| 만성질병 | | 40.7 | 38.3 | 66.8 | 35.0 | 28.96 | 1<2, 2>3 |

주: 1) Scheffe test 결과 숫자사이의 부등호 표시는 유의수준 .05 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2)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 집단, 다차원 박탈집단, 비빈곤 집단을 의미한다.

〈표 3-10〉 다항로짓분석 결과

| 구분 (n=1,605) | |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 (주거비 과부담) 비빈곤 | (비빈곤) 다차원 박탈 |
|--------------------|-------|---------------------|--------------------|---------------------|
| 가구주 나이 | | 0.025 (0.016) | -0.041* (0.016) | 0.067*** (0.020) |
| 여성 가구주 | | 0.687* (0.324) | 0.155 (0.437) | 0.532 (0.456) |
| 가구원 수 | | 0.202 (0.139) | -0.160 (0.116) | 0.362* (0.165) |
| 노인 가구원 | | 0.582 (0.370) | -0.081 (0.375) | 0.663 (0.485) |
| 가구주 학력 (대학원 이상) | 중졸 이하 | -1.053 (0.969) | -0.955+ (0.538) | -0.098 (1.079) |
| | 고졸 이하 | -0.691 (0.927) | -0.527 (0.374) | -0.164 (0.979) |
| | 대졸 이하 | -0.745 (0.903) | -0.274 (0.350) | -0.471 (0.949) |
| 지역 (도농 복합군) | 서울 | 0.569 (0.583) | 1.168+ (0.663) | -0.599 (0.829) |
| | 광역시 | -0.508 (0.578) | 0.013 (0.660) | -0.521 (0.841) |
| | 시 | 0.377 (0.538) | 0.503 (0.652) | -0.126 (0.802) |
| | 군 | -0.793 (0.673) | 0.525 (0.710) | -1.317 (0.919) |
|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 하층 | 0.441 (1.188) | 0.472 (0.489) | -0.032 (1.265) |
| | 중하층 | 0.027 (1.156) | 0.334 (0.429) | -0.307 (1.221) |
| | 중간계층 | -0.313 (1.156) | 0.074 (0.397) | -0.387 (1.214) |

54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 구분 (n=1,605) | |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 (주거비 과부담) 비빈곤 | (비빈곤) 다차원 박탈 |
|---|-----------------|-----------------------|-------------------|-----------------------|
| 주관적 건강상태 (bad) | | 0.572*** (0.172) | -0.094 (0.175) | 0.666** (0.204) |
| 만성질병 | | 0.131 (0.267) | 0.149 (0.189) | -0.018 (0.301) |
| 기초보장수급 | | 0.950** (0.341) | 0.099 (0.523) | 0.851 (0.565) |
| 순자산(천원/년) | | -0.016*** (0.004) | -0.001 (0.002) | -0.015*** (0.004) |
| 가처분소득(천원/월) | | -0.217*** (0.041) | -0.008 (0.022) | -0.209*** (0.044) |
| 어린시절 경제수준 ¹⁾ | 어린시절 가난하지 않음 | -0.135 (0.239) | -0.035 (0.178) | -0.100 (0.275) |
| 가구주 부의 교육수준 ¹⁾ (초등학교) | 중학교 | -0.178 (0.358) | 0.142 (0.241) | -0.319 (0.396) |
| | 고등학교 | 0.155 (0.454) | -0.098 (0.259) | 0.252 (0.488) |
| | 전문대학교 | -0.605 (0.663) | -0.461 (0.371) | -0.144 (0.721) |
|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¹⁾ (초등학교) | 중학교 | -0.118 (0.385) | 0.371 (0.253) | -0.489 (0.424) |
| | 고등학교 | -0.455 (0.658) | 0.622* (0.299) | -1.077 (0.676) |
| | 전문대학교 | -16.099*** (1.150) | 0.726 (0.594) | -16.825*** (1.204) |
| Constant | | 0.869 (2.050) | 1.112 (1.269) | -0.244 (2.355) |

*** $p < .0001$ ** $p < .001$ * $p < .05$ + $p < .01$

주: 1) 어린시절 경제수준, 가구주 부의 교육수준 및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은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함.

각 잠재집단 간에 속하는 가구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특성과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변인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10 참조). 먼저,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을 비교해보면, 소득과 자산은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주 모의 학력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인 유의도가 낮기는 하지만 가구주의 학력과 거주하는 지역 또한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즉, 가구주의 나이가 젊을수록 주거비 과부담 집단보다는 일반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가구주 모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일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의 학력보다는 대학원 이상 학력일수록 주거비 과부담 집단 보다는 비빈곤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다차원 박탈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을 비교해보면, 다차원 박탈집단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 규모 및 소득과 자산과 같은 특성에서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차이가 난다. 여성가구주일수록, 가구주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기초보장 수급가구일수록 주거비 과부담 집단 보다는 다차원 박탈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자산과 소득은 낮을수록 주거비 과부담 집단 보다는 다차원 박탈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가구주 모의 학력이 초등학교보다는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일수록 다차원 박탈집단보다는 주거비 과부담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다차원 박탈집단과 비빈곤 집단의 비교를 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낄수록, 비빈곤 집단보다는 다차원 박탈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순자산 소득이 낮을수록 비빈곤 집단 보다는 다차원 박탈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가구주 모의 학력이 초등학교보다는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일수록 다차원 박탈집단보다는 비빈곤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제4장 빈곤집단 아동의 특성

제1절 빈곤과 아동발달간의 관계

제2절 빈곤의 시간차원과 아동발달

제3절 빈곤집단별 아동발달 특성

제4절 소결

4

빈곤집단 아동의 특성 <<

제1절 빈곤과 아동발달간의 관계

1. 빈곤과 아동의 인지발달과의 관계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주로 인적자본 이론에서 지지되는 가설이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생활비의 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아동의 교육비용은 기회비용이 너무 높은 항목이 된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빈곤 가족은 자녀의 학비나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 수준을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를 포함한 인지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빈곤가족은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인지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책이나 장난감,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인지발달을 자극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과정모델에서는 빈곤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부모들이 자녀의 인지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고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한다.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실증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몇몇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구인회, 2003; 구인회 외, 2009; 김광혁, 2006; 2008; 2010; 김지혜와 김익중, 2010; 임세희, 2007). 실증 연구들에서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와 어떤 자료를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아동 중에서 누구를 분석

하였는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으나, 연구의 결과들은 대체로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통해 빈곤을 측정하거나(이경혜와 김정일, 2009; 임세희, 2007)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에 기초하여 빈곤의 여부나 정도를 측정한 경우(구인회 외, 2003; 김광혁, 2006, 2008, 2010; 김지혜와 정익중, 2010),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를 빈곤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김광혁, 2008; 김지혜와 정익중, 2010). 또한 욕구소득비를 범주화 하는 데에 있어서 3계층부터(구인회, 2003), 4계층(김광혁, 2010), 5계층(김광혁, 2006)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다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를 이용하여 빈곤을 '가족소득 200만원 미만인 계층'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구성된 이항변수와 자녀 교육비에 갖는 부담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된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에서는(이경혜와 김정일, 2009) 부모의 빈곤이 중학교 1학년 아동의 국영수 성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아동패널 2004-2006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가족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도(구인회 외, 2009),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되는 사이에 빈곤아동은 학업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방향의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비빈곤의 아동은 학업성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빈곤을 가족의 소득과 함께 가구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었을 때 산출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동시에 고려

한 연구에서도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6세 청소년의 진학 고등학교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 진학률이나 학력연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빈곤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2003).

한국청소년패널을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 아동의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김광혁, 2006) 욕구소득비가 1미만의 빈곤가정인 경우에 비빈곤 가정에 비하여 고1 때의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지속되었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서 가구소득을 1) 욕구소득비 산출지표를 그대로 사용한 변수와 2) 욕구소득비에 따른 소득수준별 5집단 분류, 그리고 3) 빈곤여부에 따른 분류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소득수준별로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수행되었다(김광혁, 2010). 이 연구에서 저자는 국내의 주요패널 자료 4가지를 활용하여 가족소득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비선형적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아동패널과 청소년패널의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료분석을 통해 가구소득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분명함을 밝혔다. 한국교육종단연구와 청소년패널을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 아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초5 아동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비선형성을 보여주었으나, 소득수준별 차이가 초5 아동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종단연구와 교육고용

패널을 이용하여 중3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비선형성을 동일하게 나타냈고 중1 아동의 결과에 비해 그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의 실증연구에서는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와 어떤 자료를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아동 중에서 누구를 분석하였는지에 있어서 상이한 지점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자료와 방식으로 분석을 한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가족과정이론에 의해 주로 지지되는 가설이다. 특히 가정 내의 정서적인 상호과정에 초점을 맞춘 적대적 상호작용 이론(Patterson, 1982, 이경혜, 김정일(2009)에서 재인용)에 기초하여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부모 및 형제자매, 이웃과 친척들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의 내재화된 혹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Conger, 19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이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사회인지적 정보처리과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아동의 비행은 특정상황에서 갈등적이거나 일탈적인 해결책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인지능력의 결핍 때문에 야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빈곤가족은 아이의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인지적으로 자극하지 못해서 문제행동 보인다(정익중, 2009).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크게 부정적인 발달 산물인 문제행동과 긍정적인 발달산물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이 아동의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빈곤과 비빈곤 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빈곤이 아동의 비행등의 문제행동과 유의하게 밀접한 관계를 보이거나 예측요인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으나(구인회 외, 2009; 박현선, 2008) 빈곤이 유의한 설명변수로서 작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김광혁, 2003), 빈곤과 동반되는 가족구조나 아동학대, 유해한 지역환경과 같은 위험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지기도 한다(박현선, 2008).

구체적으로, 350명의 비빈곤 중고생과 150명의 빈곤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지위는 중고생의 비행행동과 우울이나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광혁, 2003). 한편, 서울아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빈곤지위가 초4아동의 비행행동과 우울 및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박현선, 2008). 그러나 결혼가구인지 여부와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가정 및 이웃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위험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빈곤이 우울이나 불안,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연구결과는 다른 위험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행연구들 간의 분석 자료의 상이성과, 대상이 된 아동의 발달단계에서의 차이점도 존재하므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후

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사회정서 발달 지표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빈곤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빈곤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고등학교 4학교를 대상으로 350명의 비빈곤 학생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급 여부를 통해 측정된 절대적 빈곤 아동 집단과 비빈곤 아동 집단간의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태를 판단한 주관적 빈곤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혁, 2003). 보다 대표성을 가지는 대규모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현선(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인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수준, 또는 공공부조 수급여부나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이 빈곤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자아존중감에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과 대조가 된다. 김광혁(2003)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존감에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결과라 하겠다. 즉, 아동이 자원의 결핍을 직접 느끼고 빈곤지위에 처해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에는 결정적으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실

증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보다는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 발달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구인회 외, 2009), 현 시점에서의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영역에 속하는 우울이나 불안, 비행, 공격성, 주의집중력과 같은 행동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인지발달 영역인 학업성취에 있어서만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실증연구와도 일치한다(Duncan & Brooks-Gunn, 1997; McLoyd, 1998).

그런데 서구의 연구결과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국청소년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2부터 고3기간까지 청소년들의 빈곤과 비행행동의 발달궤적을 함께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정익중, 2009), 한 시점에서 빈곤여부와 비행의 궤적 간에는 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종단적으로 빈곤의 궤적과 비행의 궤적을 함께 바라보면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비행수준이 낮은 편인 상태로 지속되는 저비행 지속형 같은 경우가 국내 연구에서는 드러나 지연된 청소년기처럼 지연된 비행증가도 가능하다고 저자는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이 학령기에는 사회정서발달보다 인지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회정서발달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히 빈곤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빈곤 가정 부모의 양육특성과 아동발달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부관계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nger et al., 1992; 1997). 다시 말해서 가족의 소득수준이 아동의 언어, 신체, 지능,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정신건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특성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간접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엄마들은 보다 강압적인 훈육 방식을 나타내고 아이들에 대해 온정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아동의 언어, 지능,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곽금주 외, 2007). 또한 빈곤을 경험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서 가치나 규범, 모범적 행동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이거나 통제적이고 경직된 사회규범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곽금주 외, 2007; 장혜림과 정익중, 2012).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빈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만 3세의 초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곽금주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집단의 부모가 비빈곤 집단 부모보다 적대적이고 무관심하고,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적은 비빈곤 집단에서는 부모들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도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빈곤가정의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취약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빈곤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장혜림과 정익중(2012)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빈곤가정의 부모들이 보호자로서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는 감독형 양육방식을 덜 취하고, 애정적인 양육방식 또한 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감독양육방식과 애정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오락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학업습관이 좋으며, 아동의 자아발달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규모의 아동 및 청소년 패널데이터 4개를 이용하여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광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생활감독이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관계변수는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있어서는 인지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가정환경의 영향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고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회정서발달에는 보다 더 강력한 매개변수효과를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김광혁, 2008;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빈곤이 아동의 발

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임세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빈곤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와 진학관련 대화 빈도를 통해 측정된 부모-자녀간 애착관계가 강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단기 빈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애착관계가 동일한 경우 비빈곤의 청소년이 단장기빈곤 가구의 청소년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관계가 낮은 경우, 장기빈곤가구가 비빈곤이나 단기빈곤가구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관계가 보통인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며, 애착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장기빈곤가구의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비빈곤 아동보다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애착관계가 특히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측정된 만큼,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컸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빈곤의 가족에 있어서는 오히려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모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빈곤 부모의 양육특성과 아동의 발달은 매우 정교하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빈곤의 시간차원과 아동발달

1. 빈곤의 시기/지속기간/정도에 따른 영향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이 어린 시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그 영향의 강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 & Duncan, 1997; Corcoran, 2000; McLoyd, 1998). 발달이론에서는 신체, 언어, 인지, 도덕성, 사회성 발달 등의 영역별로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며, 적절한 시기의 발달이 이후의 발달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기가 결정적 시기인 뇌의 발달이나 지능의 발달이 이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발달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 아동이 언제 빈곤을 경험하였는지, 얼마나 오래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빈곤이 가지는 시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 연구의 제한점에 주목하고 빈곤의 시간차원을 고려하여 아동발달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광혁(2006; 2010)은 아동이 빈곤을 경험한 시기와 빈곤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시기는 아동이 만 10-12세에 빈곤을 경험했을 경우 초기빈곤, 만 15-17세에 빈곤을 경험했을 경

우를 후기빈곤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초기빈곤을 경험한 경우에 후기빈곤이나 비빈곤인 경우에 비해 16-18세 시기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초기빈곤의 영향은 국어보다 수학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기 빈곤 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빈곤의 시기뿐만 아니라, 빈곤의 지속기간에 따라서도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빈곤이나 일시적인 빈곤이 아니라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구인회 외, 2009; 김광혁, 2006; 임세희, 2007; Conger et al., 1997; Duncan et al., 1994; Smith et al., 1997),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도 지속적 빈곤에 있었던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일시적인 빈곤에 놓인 아동들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급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et al., 1994).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빈곤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통해 살펴 본 김광혁(2006)의 연구에 따르면, 4년 이상 빈곤을 지속한 경우를 장기빈곤, 3년 이내를 단기빈곤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았을 때, 단기 빈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동의 성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해왔던 아동의 경우에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조한 국어와 수학 성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조사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임세희(2007)의 연구에서도 장기빈곤이 고등학생들의 자기 응답형 학습성적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임세희(2007)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빈곤 지속기간을 4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빈곤으로 자의적 구분을 하였던 제한점에 주목하여 누적빈곤지속확률과 위험률을 통해 빈곤탈출확률이 달라지는 시점을 구함으로써 2년까지를 단기빈곤, 3년부터 6년까지를 장기빈곤으로 구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다른 대표성이 있는 자료의 종단자료를 토대로 장기빈곤이라 지칭할 수 있는 기간을 도출하여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구인회 외(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기간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발달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차에 걸쳐 수집된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3년 동안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과 단절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아동, 그리고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주의집중력, 공격성과 비행의 지속여부를 살펴본 결과, 빈곤 아동은 학업성취에서 있어서는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을 뿐, 일시적 빈곤인지 지속적 빈곤인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아동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빈곤인지 여부만이 유의하게 다른 집단들과 차이를 보였고, 일시적인 빈곤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빈곤의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여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시기가 결정적이고, 어느 시점과 지속성이 중요한지에 대해 실증적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차원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적 한계로 인해 작위적인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아동의 발달 단계가 아니라 패널조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시점에서부터 초기와 중기, 후기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연구가 많고, 시간의 축 상에서 어느

시점이 결정적인 시기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비빈곤)에 비하여 초기에 빈곤을 경험하고 후기에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와 초기에는 경험하지 않고 후기에는 경험한 경우,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경험한 경우로 나누고 있으므로, 지속기간에 의한 분류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와 지속기간의 효과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빈곤의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실증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빈곤의 장기적 효과

빈곤의 장기적 효과는 빈곤의 경험이 당장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서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 초기의 빈곤 경험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 이후에도 건강, 교육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Duncan et al., 2012; Duncan et al., 1998; Duncan et al., 2010).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 빈곤의 주기를 중심으로 빈곤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실시한 홍경준(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빈곤에 진입한 표본의 60% 이상이 1년 만에 빈곤으로부터 이탈하고, 3년이 지속될 때까지 빈곤집단에 남아있을 확률은 약 14%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빈곤으로의 진입과 이탈이 비교적 짧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빈곤선 주변에서 진입과 이탈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 빈곤이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빈곤의 문제가 더 우려할만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빈곤의 문제는 아동의 발달에 오

랜 기간에 걸쳐 있게 됨으로써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예견하게 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 빈곤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직접 밝히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아동기의 빈곤이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주제에 수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유진 외(2007)에서는 1985년에서 2006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성인인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30대의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았고 자녀의 교육수준에 따른 간접효과와 순효과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김위정과 김왕배(2007)는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14세 때 가정형편이 어떠한지를 통해 측정한 부모의 빈곤이 20대에서 50대의 성인 자녀의 빈곤으로 이행되는 경향성을 살피고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코호트에서 일관되게 부모가 빈곤한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5년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성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5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빈곤은 성인이 된 자녀의 단기 및 장기 빈곤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빈곤의 세습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동기의 부모의 빈곤이 성인이 된 자녀의 현재 소득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입증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구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있어서의 성취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분석이 이루어

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부모의 빈곤 역시 회고적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제한점이 존재한다.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종단적 자료를 통해 아동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최근 변금선(2012)에 의해 수행되었다. 변금선(2012)은 한국노동패널자료 2차부터 12차까지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성인기(만 20~26세)의 건강과 교육 성취 및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저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빈곤여부만이 아니라 건강성취와 교육성취,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라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인기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의 빈곤이 주관적인 건강상태나 비만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교육년수, 대학진학여부를 통해 측정된 교육성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고 임금은 더 낮은 노동시장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빈곤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동기의 빈곤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하고 적절한 정책 마련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아동기는 만 14세 혹은 만 17세 때의 가구소득을 측정한 것으로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이 초기 아동기의 경험에 의해 이미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으므로 아동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을 보는 가장 적합한 측정도구는 아니라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시되어온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 Duncan과 동료들의 연구처럼 국내의 종단자료가 초기 아동의 경험과 성인기의 성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으므로, 무엇보다도 초기 아동기의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빈곤집단별 아동발달 특성

빈곤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과 양육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앞선 3장에서 분석된 빈곤집단의 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동발달의 각 영역에 미치는 원인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러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기에는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다.⁷⁾ 세 번째 이유로는 아동부가조사 샘플은, 한 명의 아동이 하나의 가구를 대표하지 않는다. 즉, 두 명이 아동이 동시에 한 가구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거나 세 명의 아동이 한 가구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동을 분석 단위로 하고 가구단위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분석결과와 신뢰도가 낮다. 네 번째로는 3차 아동부가조사의 샘플은 가중치를 주더라도 빈곤 집단의 비율이 20%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빈곤집단 간 아동발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의 3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빈곤집단의 세 유형에 따라 인지영역과 사회정서영역을 중심으로 한 아동발달 및 아동양육환경이 차이가 나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7) 아동발달 영역별 결측치에 따라 최대 샘플 수는 512명의 아동이며, 최저 샘플 수는 448명의 아동이다.

76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표 4-1〉 샘플 특성(가중치 분석)

| 구분 | | 사례수 | 비율/평균 |
|----------------|-------------|-----|-------|
|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 | | 512 | 82.88 |
| 아동의 성별 | 남 | 264 | 55.53 |
| | 여 | 247 | 44.47 |
| 아동의 현재 학년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 173 | 27.9 |
|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 165 | 34.05 |
|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 158 | 34.66 |
| | 휴학 및 중퇴 | 16 | 3.38 |
| 인지발달 | 국어성적 | 496 | 3.21 |
| | 수학성적 | 496 | 2.77 |
| | 영어성적 | 496 | 2.92 |
| 심리사회발달 | 학교스트레스 | 496 | 6.07 |
| | 학교유대감 | 496 | 11.75 |
| | 자아존중감 | 512 | 25.08 |
| | 우울 및 불안 | 512 | 4.57 |
| | 주의집중 | 512 | 4.10 |
| | 자살생각 | 512 | 2.03 |
| 양육환경 | 부모의 교육참여 | 508 | 4.91 |
| | 지도감독 | 508 | 7.68 |
| | 신체학대 | 508 | 0.12 |
| | 정서학대 | 508 | 0.86 |
| | 방임 | 508 | 0.25 |

본 절에 사용된 분석 샘플은 7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3차 아동부가조사이다. 아동부가조사는 3년 단위로 조사된다. 1차 아동부가조사는 2006년, 2차는 2009년, 3차는 2012년에 이루어졌다. 3차 아동부가조사 1차년도 부가조사 응답자(복지패널조사 가구원 중 2006년 3월 현재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또는 2차년도 부가조사 응답자(복지패널조사 가구원 중 2009년 3월 현재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7차년도에는 2012년 현재 고등학교 1,2,3

년 및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차 아동부가조사에서 조사를 완료한 총 샘플은 512명의 아동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사용된 최종 분석샘플은 512명의 아동이다. <표 4-1>은 본 분석에 사용된 샘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인지 영역은 아동부가조사에서 실시한 주관적 학교성적을 이용하고자 한다. 학교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성적을 이용하고자 한다. 사회정서 영역은, 학교스트레스, 학교유대감,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자살생각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학대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변수측정과 정의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변수 특성

| 구분 | | 변수 측정 |
|----------------|----------|-------------------------|
|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 | | 균등화된 가구소득 중위 60% 미만인 가구 |
| 인지발달 | 국어성적 | 1. 아주못함 ~ 5. 아주잘함 |
| | 수학성적 | 1. 아주못함 ~ 5. 아주잘함 |
| | 영어성적 | 1. 아주못함 ~ 5. 아주잘함 |
| 심리사회발달 | 학교스트레스 | 4문항 4점척도 총점 |
| | 학교유대감 | 6문항, 4점척도 총점 |
| | 자아존중감 | 13문항, 4점척도 총점 |
| | 우울 및 불안 | 14문항, 3점척도 총점 |
| | 주의집중 | 11문항, 3점척도 총점 |
| | 자살생각 | 6문항, 5점척도 총점 |
| 양육환경 | 부모의 교육참여 | 4문항, 4점척도 총점 |
| | 지도감독 | 4문항, 4점척도 총점 |
| | 신체학대 | 1문항, 5점척도 총점 |
| | 정서학대 | 3문항, 5점척도 총점 |
| | 방임 | 4문항, 5점척도 총점 |

1. 빈곤집단 유형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표 4-3〉을 보면,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은 집단 유형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성적의 경우에는 빈곤집단이 가장 낮은 2.52를 나타내고 있다. 즉, ‘못함’과 ‘보통’사이의 값을 갖는다. 비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간에는 영어성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은 직관적으로 연구결과의 이해를 돕고자 집단 유형별 인지발달이 차이가 나는 영역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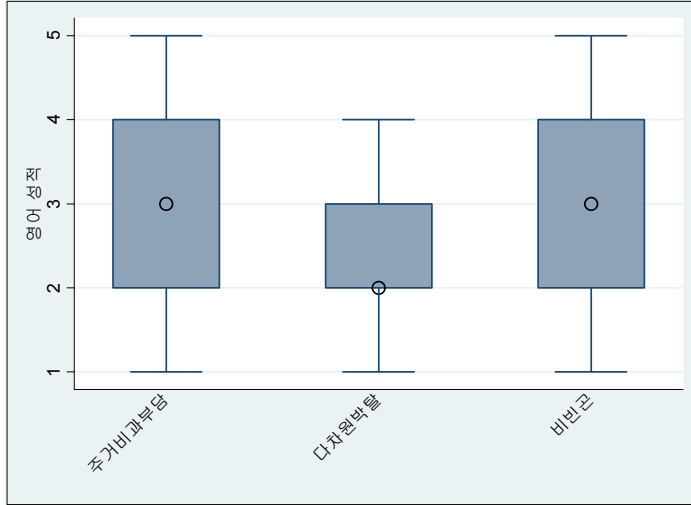
〈표 4-3〉 집단별 인지발달 차이(가중치 분석)

| 구분 | 주거비 과부담 (n=292) | | 다차원박탈 (n=96) | | 비빈곤 (n=46) | | F-value | Scheffe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alpha<.05$ | $\alpha<.01$ |
| 국어성적 | 3.27 | 0.95 | 3.23 | 0.87 | 3.22 | 0.90 | 0.08 | | |
| 수학성적 | 2.87 | 1.16 | 2.59 | 1.16 | 2.60 | 0.88 | 2.63 | | |
| 영어성적 | 3.07 | 1.14 | 2.52 | 1.12 | 2.85 | 1.08 | 7.23 | 1)2 ¹⁾ | |

주: 1)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 4-1]을 보면,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비빈곤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50% 정도가 2와 4사이의 값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못함’과 ‘잘함’ 까지 응답한 사례가 50% 정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차원박탈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못함’과 ‘보통’ 사이에 위치한다. 극단치를 제외하면 다차원박탈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영어성적의 최대값은 ‘아주잘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빈곤집단별 영어성적



2. 빈곤 집단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영역에서의 차이

사회정서발달상의 차이는 학교스트레스 영역과 자살생각 영역에서 집단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는 아동빈곤집단 유형별 사회정서영역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집단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학교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두 가지 영역에서의 집단간 차이는 [그림 4-2]와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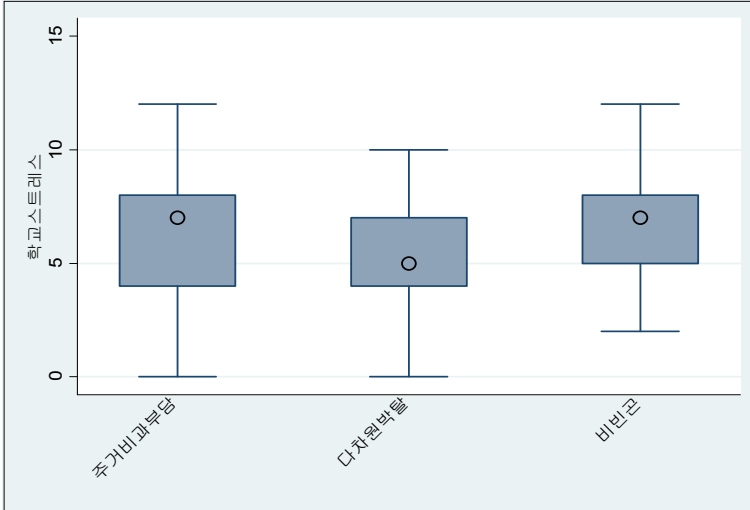
〈표 4-4〉 집단별 아동특성(가중치 분석)

| 구분 | 주거비 과부담 (n=292) | | 다차원박탈 (n=96) | | 비빈곤 (n=46) | | F-value | Scheffe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α .05 | α .01 |
| 학교스트레스 | 6.12 | 2.57 | 5.35 | 2.40 | 6.43 | 2.70 | 3.31 | 1)2 ¹⁾ | 2)3 |
| 학교유대감 | 11.68 | 2.62 | 11.56 | 2.62 | 11.80 | 2.66 | 0.13 | | |
| 구분 | 주거비 과부담 (n=298) | | 다중박탈 (n=102) | | 비빈곤 (n=48) | | F-value | α .05 | α .01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 |
| 자아존중감 | 25.04 | 5.97 | 25.21 | 5.63 | 23.29 | 6.30 | 2.15 | | |
| 우울 및 불안 | 4.66 | 4.86 | 3.99 | 4.19 | 5.90 | 5.31 | 2.52 | | 2)3 |
| 주의집중 | 4.17 | 4.29 | 3.44 | 3.29 | 5.01 | 4.32 | 2.28 | | |
| 자살생각 | 1.84 | 3.84 | 1.97 | 4.53 | 3.34 | 5.40 | 3.00 | 1)3 ¹⁾ | |

주: 1)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집단을 의미한다.

먼저 학교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집단과 비빈곤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차원박탈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다차원박탈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가와 관련된 4개의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5.35/4=1.3) ‘그렇지 않다’의 범주에 가까운 응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빈곤한 집단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장려 또는 강요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뒤의 분석에서 기술하겠지만, 다차원적 빈곤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지도감독이나 부모의 교육참여가 낮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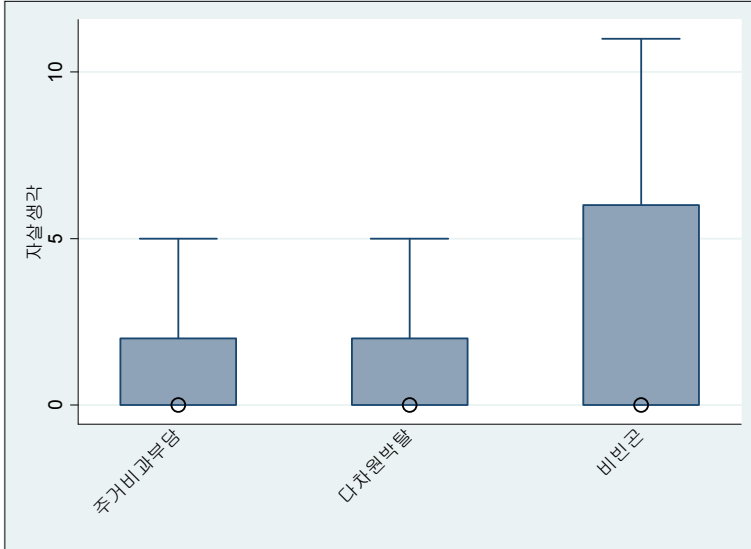
[그림 4-2] 빈곤집단별 학교스트레스



빈곤집단별 자살생각은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다차원 박탈 집단 간에는 자살생각의 빈도가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과부담집단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빈곤 집단에서 자살생각은 평균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주거비과부담 집단과 다차원박탈집단의 경우에는 각각 평균이 1.84와 1.97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비빈곤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6개의 자살생각에 대한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3.34/6=0.6) '지난달에 없다'의 범주에 응답했다는 의미이다.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다차원박탈집단은 평균적으로 (1.84/6=0.3, 1.97/6=0.3) '전혀 없다'의 범주에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비빈곤 집단의 아동이 빈곤집단의 아동보다 자살위험에 약간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살생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집단에 속하든 대부분의 아동들은 '0'에 해당하는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빈곤집단별 자살생각



3. 빈곤집단 유형에 따른 양육환경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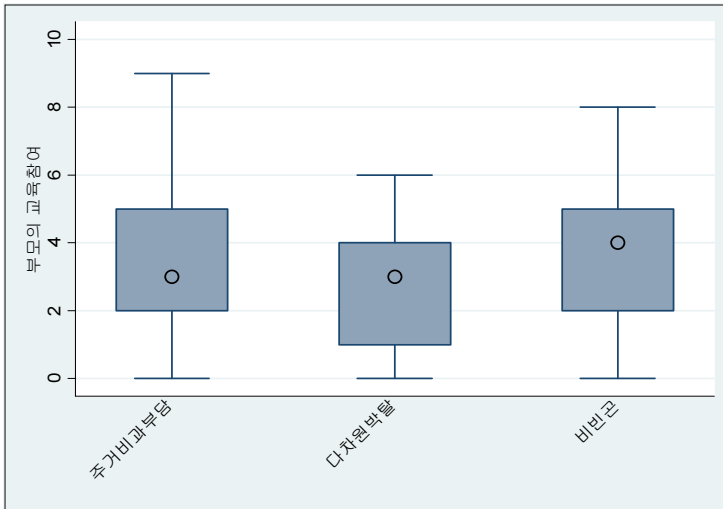
<표 4-5> 집단별 아동특성(가중치 분석)

| 구분 | 주거비 과부담 (n=296) | | 다차원박탈 (n=101) | | 비빈곤 (n=47) | | F-value | Scheffe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p < .05$ | $p < .01$ |
| 부모의 교육참여 | 3.16 | 2.10 | 2.64 | 1.93 | 3.77 | 1.99 | 4.67 | 2<3 ¹⁾ | 1>2 |
| 지도감독 | 7.79 | 2.10 | 7.07 | 2.66 | 7.36 | 2.32 | 3.54 | 1>2* | |
| 신체학대 | 0.13 | 0.37 | 0.08 | 0.28 | 0.21 | 0.46 | 1.88 | | |
| 정서학대 | 0.87 | 1.96 | 0.75 | 1.78 | 1.71 | 3.26 | 3.89 | 1,2<3 | |
| 방임 | 0.25 | 0.85 | 0.23 | 0.94 | 0.54 | 1.41 | 2.20 | | |

주: 1) 숫자 1, 2, 3은 각각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집단을 의미한다.

빈곤집단의 유형에 따른 아동양육환경은 부모의 교육참여, 지도감독 및 정서학대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신체학대나 방임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교육참여는 비빈곤 집단이 다차원박탈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과부담집단간에는 부모의 교육참여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4-4]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림 4-4] 빈곤집단별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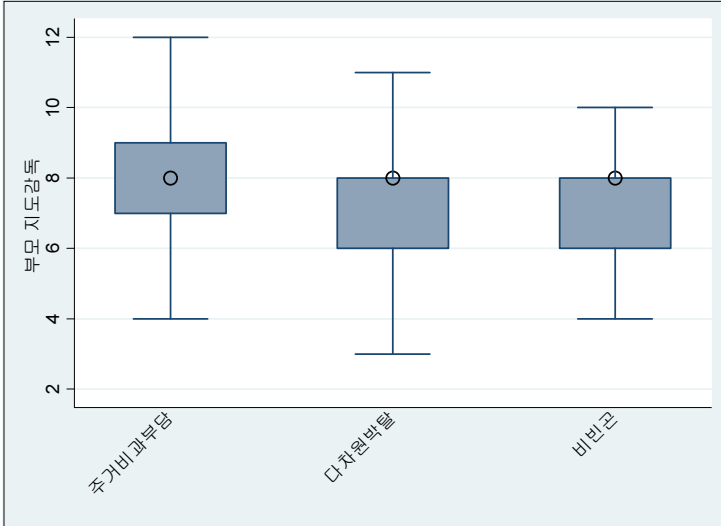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나 비빈곤 집단의 경우 사례의 50%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구간이 '2'와 '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평균은 각각 3.2와 3.8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값이 3.2와 3.8이라는 의미는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비빈곤 집단에 속하는 아동은 부모의 교육참여와 관련된 4개의 항목에서 평균적으로($3.2/4=0.8$, $3.8/4=0.9$)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범

주에 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두 집단과 달리 다차원박탈집단의 경우에는 사례의 50%가 더 낮은 '1'과 '4' 사이의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평균 또한 2.64로 이 집단에 속한 아동은 평균적으로($2.64/4=0.66$)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의 범주의 값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데이터 상에서는 각각의 집단에 따라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지도감독은 문항의 수가 4개라는 점과 4점척도라는 점에서 점수의 범위는 같다. 그러나 부모의 지도감독영역에서 평균점수가 약 두 배 정도(3점대 vs. 7점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4-4]와 [그림 4-5]의 분포의 위치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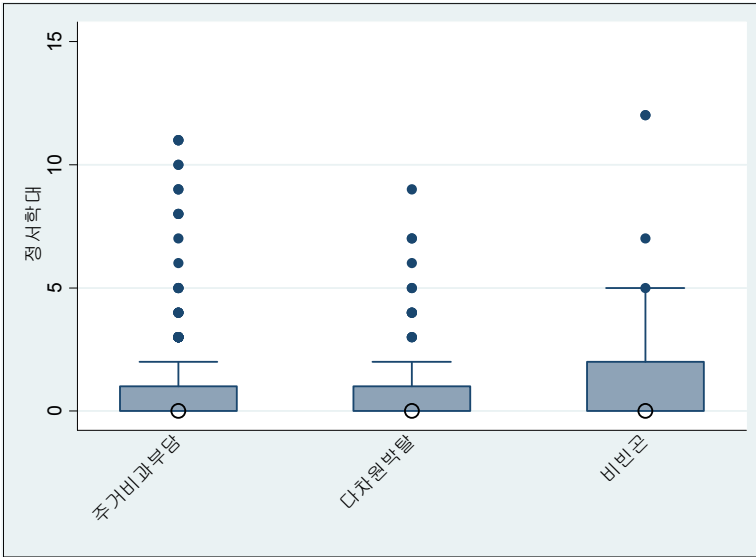
빈곤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7.8) 다차원 박탈 집단(7.1)보다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4개의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7.8/4=2.0$) '그런 편이다'라는 범주에 응답하고 있다. 다차원박탈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4개의 지도감독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평균적으로($7.1/4=1.7$) '그렇지 않다'와 '그런 편이다' 사이의 범주에 응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다차원 박탈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평균값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 빈곤집단별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



본 샘플에서는 신체학대와 방임은 세 집단에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서학대영역에서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서 0.87, 다차원박탈집단에서는 0.75, 비빈곤 집단에서 1.71로 나타나, 비빈곤 집단에 속한 아동이 다른 두 집단에 속한 아동보다 더 높은 정서학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0점에 해당하는 범주 '전혀 없었다'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66%에서 74%)는 점과,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다차원박탈집단에서 정서학대점수 분포가 오른쪽으로 편포되어 있다. 즉, 높은 점수대의 극단치(그림에서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주거비과부담집단과 다차원박탈집단에 더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은 비빈곤 집단에 비해 정서학대에서 평균점수가 낮다고 하여도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빈곤집단별 부모의 정서학대 수준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빈곤집단 유형별 아동의 발달 및 양육환경 특성들에 대해 탐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인지발달 영역에서는 다차원박탈집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정서 영역에서는 비빈곤 집단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양육환경 또한 전반적으로 다차원박탈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다른 두 집단보다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원에서 중첩적으로 박탈을 경험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동시에 아동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거비과부담집단의 아동과 비빈곤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정서 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어

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아동의 인지 및 심리정서와 양육환경이 좋아지는지 혹은 나빠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쌓여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 투입되었지만 아동발달과 양육환경영역의 많은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많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는 아동부가조사의 특징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3차 아동부가조사 아동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3차 부가조사 아동의 83%가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부가 조사에 속하는 샘플만을 중심으로 빈곤집단 유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비빈곤 집단에 속한 아동 비율이 가중치를 준 이후에도 12%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3차 아동부가조사에 남아있는 아동은 특정 영역에서는 질적으로 비슷한 아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빈곤집단 유형별 발달영역에서의 차이는 작거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보다 적합한 샘플을 통한 분석은 추후과제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특성

제1절 주요 아동빈곤 정책의 내용

제2절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주요 특성

제3절 소결

5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특성 <<

제1절 주요 아동빈곤 정책의 내용

1. 인적 자본개발모형

가. 드림스타트사업

빈곤아동에게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공평한 출발기회는 보장될 수 없다. 이에 아동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기개입과 빈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김효진, 2008). 이러한 취지를 살려 시작된 빈곤아동지원사업이 드림스타트사업이다.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여 2008년 드림스타트로 변경한 후, 2013년 현재 사업지역 211개 지역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표 5-1〉 드림스타트센터 규모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사업 실시 시, 군, 구 수 | 16개 | 32개 | 75개 | 101개 | 131개 | 181개 | 211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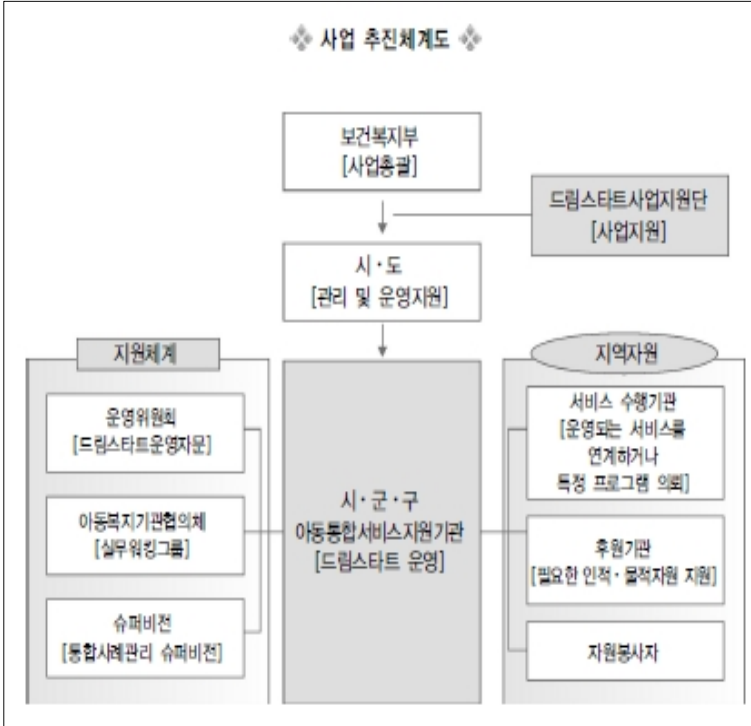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사업대상은 빈곤가족의 0~12세 빈곤아동으로, 임신부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이 우선 지원된다.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위기도 검사 후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의 변화와 함께 가족체계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에 근거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족 영역의 변화를 위해 부모대상 서비스와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12년까지 민간전문인력을 통해 운영되었지만, 2013년부터 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운영한다(보건복지부, 2013). 드림스타트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운영을 위한 시, 군, 구별로 3억원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100% 보조율로 편성된다.

[그림 5-1]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3).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사업 대상이 된다. 2003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는 2,058개교에 달한다.

〈표 5-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학교 현황

(단위: 개, %)

| 연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2012 | 257 | 906 | 831 | 64 | 2,058 |
| 비율 | - | 15.4 | 26.3 | 2.8 | -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대상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역량 강화, 심리·정서지원, 복지강화 등을 위해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제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취약 아동의 인성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방임, 방치 등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의료서비스 및 건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은 학교 내 교사인력이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2년 현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로 불리는 외부전문인력은 총 1,4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감독·지원하는 프로젝트조정자 126명, 시도교육청 프로젝트조정자 15명 등을 합해 총 1,604명의 외부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수행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2007년 326,826명(전체학생대비 4.2%)에서 2012년 1,302,250명(전체학생대비 19.4%)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 중 우선지원학생 수는 60,897명(전체학생대비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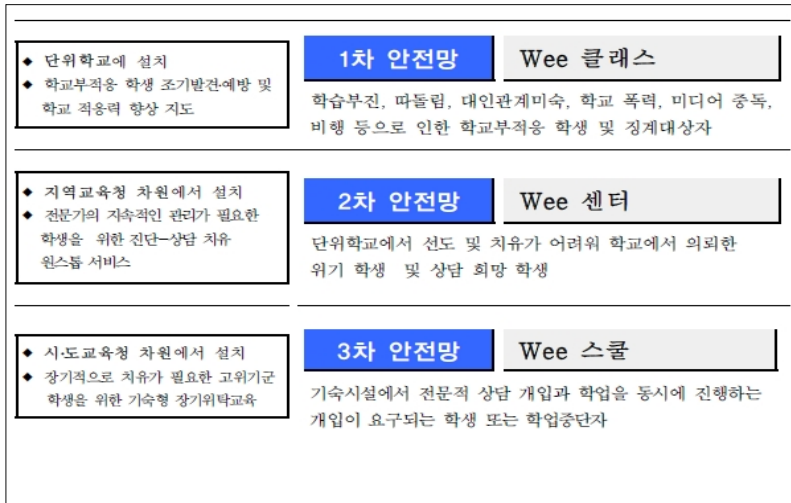
에서 292,989명(전체학생대비 4.4%)으로 5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 취약·위기아동 및 청소년지원사업

1) Wee 프로젝트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 촘촘하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학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대상은 위기학생이며, 보조 대상은 일반 학생이다.

[그림 5-2] Wee프로젝트 운영체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Wee프로젝트 운영모델 개발 연구.

Wee 프로젝트의 운영체제는 그림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wee클래스 530개교, wee센터 3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wee클래스 2,530개교(22%), wee센터 110개소(61.8%), wee스쿨 5개교 등으로 확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2) 두드림·해밀사업

두드림·해밀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만 13~24세 청소년으로 정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학업중단(숙려) 청소년, 가정보호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이 포함된다. 주된 지원 서비스는 학업복귀 동기와 자립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학업역량강화서비스, 자립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원종료후 월 1회의 사후관리를 6개월 동안 진행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기초자치단체 34개소 등 총 50개 지역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3) 청소년동반자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우울, 자살,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9~24세 위기청소년이다.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자원과 연결

하여 상담,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생활체험, 체육활동,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기개발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2. 직접적 빈곤감퇴모형

가. 공적 소득이전 정책

대표적인 탈아동빈곤정책 중 하나는 공적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증대정책이다. 공적소득이전의 주요한 수단으로는 공공부조, 아동수당, 가족수당, 편부모수당 등이 있다(김미숙 외, 2007). 이러한 공적 소득이전정책은 실직, 저임금, 가족해체나 출생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시 유용하다.

그런데 공적 이전소득이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보편적 이전소득, 사회보험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고,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소득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Solera, 2003; 김미숙 외, 2007 재인용). 특히,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이전소득을 제공할 경우, 근로동기가 촉진되기 힘들고, 빈곤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보육제도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빈곤 감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미숙 외, 2007).

아동수당은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거론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일단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도입국가 모두에서 점진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김미숙 외, 2007).

빈곤가족의 근로활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비용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이를 고려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연령대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만 0~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육료는 차등지원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월 22만원씩 지원한다.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월 39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아동빈곤율의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기회증대, 양육부담의 경감 등에는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연계 복지정책

여성 1인 생계부양자가구에서 아동빈곤의 위험은 가장 크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여성 1인 생계부양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아동빈곤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비율은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미숙 외, 2007).

아울러 빈곤가족 생계부양자의 근로동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근로활동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칫 근로소득의 증대로 인해 복지가족이 그동안 받던 급여의 혜택이 축소될 경우, 근로활동참여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근로장려금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 1명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700만 원 미만, 2명일 경우 2,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연간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이거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부양자녀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현재 자녀가 2명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향후 확대될 예정이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 현금급여 중심의 아동빈곤정책

1)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를 조부모(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된다. 이들 한부모가족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7만원이 지급되며, 조손가족 및 한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로 중고등학생자녀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3) 조손가정지원사업: 희망사다리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 하고, 최저생계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배움지도사 파견지원을 통한 학습 및 정서지원, 생활 가사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주거환경 개선,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된다.

4) 소년소녀가정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에 대해 지원한다. 즉,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단,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지원은 2013년부터는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교육 급여, 의료급여, 월 1인당 12만원의 부가급여,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 정서적 후원자를 지정하여 연결시켜주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소년소녀가정의 결연기관이기에, 시, 군, 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5)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디딤씨앗통장)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빈곤아동

의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 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가정복귀 아동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는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이 있다.

〈표 5-3〉 아동발달계좌 지원대상 현황

(단위: 명)

| 구분 | 총합계 | 시설보호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소년소녀 가정 아동 | 공동생활 가정 아동 | 장애인 시설 아동 | 가정복귀 아동 |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아동 |
|------|--------|---------|------------|------------|------------|-----------|---------|----------------|
| 총가입자 | 63,607 | 18,536 | 15,617 | ,1075 | 2,629 | 2,982 | 2,447 | 20,321 |

자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www.adongcda.or.kr/>

지원기간은 0세부터 만 18세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시 (연 12세)부터 만 18세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적립방식은 기본매칭 matching적립으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으로 지원한다. 기본매칭 최고 한도 3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하나, 국가의 추가지원은 없다.

제2절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주요 특성

1.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명료한 정책목표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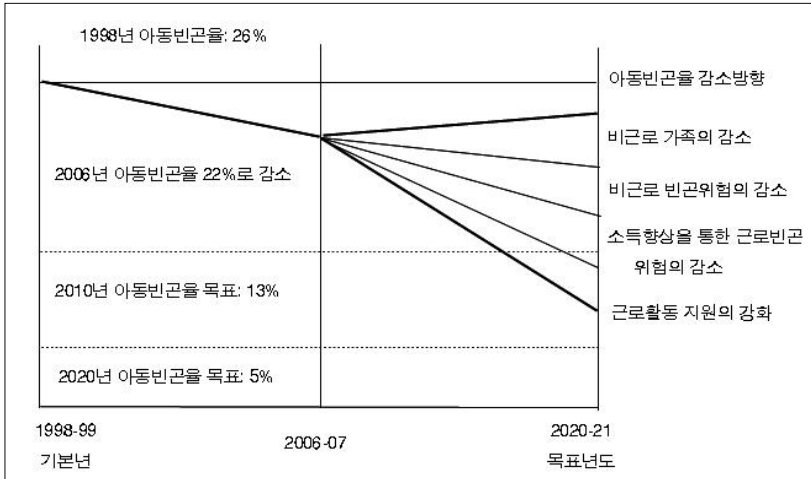
지금까지 빈곤아동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목표를 제시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갖지 못했다. 다행히 정부는 2013년까지 관련법에 의거해 법적인 수립의무가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실은 역으로 지금까지의 아동빈곤정책은 사안별로 산발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중앙기구가 활동하지 못한 실정을 반영한다.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낮은 아동빈곤율을 보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아동빈곤율은 현저하게 감소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실행된 아동빈곤정책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빈곤아동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부재는 명료한 정책목표의 부재로 이어진다. 간명하면서도 선명한 정책목표는 관련된 정책실행자와 일선아동복지기관에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1998년의 아동빈곤율 26%를 경험하면서, 강력한 탈빈곤정책계획을 수립하면서, 명료한 정책목표로 2020년 아동빈곤율 5%대 감소를 내걸었다. 이러한 정책목표 아래, 영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빈곤가족에 대해 근로활동참여동기를 촉진시키고, 취업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irsch, 2006).

[그림 5-3] 영국의 아동빈곤율 퇴치 목표 및 정책 방향



자료: Hirsch(2006: 5).

[그림 5-3]에서처럼 영국정부는 2005년 아동빈곤율 22%, 2010년 아동빈곤율 13%, 2020년 아동빈곤율 5%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비근로 가구주 감소, 직접적 소득지원, 다양한 근로활동 지원 등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08년 OECD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빈곤율은 아동인구 12.5%, 아동동반가구 11.2%로 나타나 현재까지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3년에 수립될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빈곤과 관련된 선명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계획의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2. 낮은 수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하 GDP)대비 0.8%로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GDP 대비 2.3%인 것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이다(김미숙 외 2012; 이주연과 김미숙, 2013).

아동가족복지지출이 GDP 대비 3%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헝가리,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 대부분이 노르딕국가와 유럽복지국가에 해당된다.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자유주의국가와 남유럽국가는 아동가족복지지출수준이 0.7~1.6%대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4개 조사국가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주연과 김미숙, 2013).

〈표 5-4〉 복지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비용(2011년)

| 구분 | 장애인 | 노인 | 영유아 | 아동 |
|------------|---------|-----------|-----------|---------|
| 복지예산(백만원) | 647,539 | 3,714,510 | 2,478,380 | 169,154 |
| 1인당 복지예산비용 | 268,806 | 850,933 | 826,275 | 20,019 |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

실제 복지지출비용의 규모 역시 열악한 실정이다. 아동 1인당 복지예산비용은 1997년 680원에서 1997년 3,500원, 2008년 8,800원 2011년에는 20,019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장애인 등 다른 대상군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공계순 외, 2013). 2011년 복지예산을 기준으로 노인 1인당 복지비는 85만원, 장애인 1인당 복지비는

26만원수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비의 7.5%, 노인복지비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동가족복지비의 지출규모는 아동빈곤율의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주연과 김미숙, 2013). 빈곤아동가족의 소득지원, 빈곤가족의 소득 이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현물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빈곤의 확실한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지출비중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 아동복지지출에서 현물서비스와 현금급여의 불균형

현재까지 아동대상의 복지지출구조는 현물서비스보다는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이주연과 김미숙, 2013). GDP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에서 대부분이 현물서비스로 제공되며,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다(김미숙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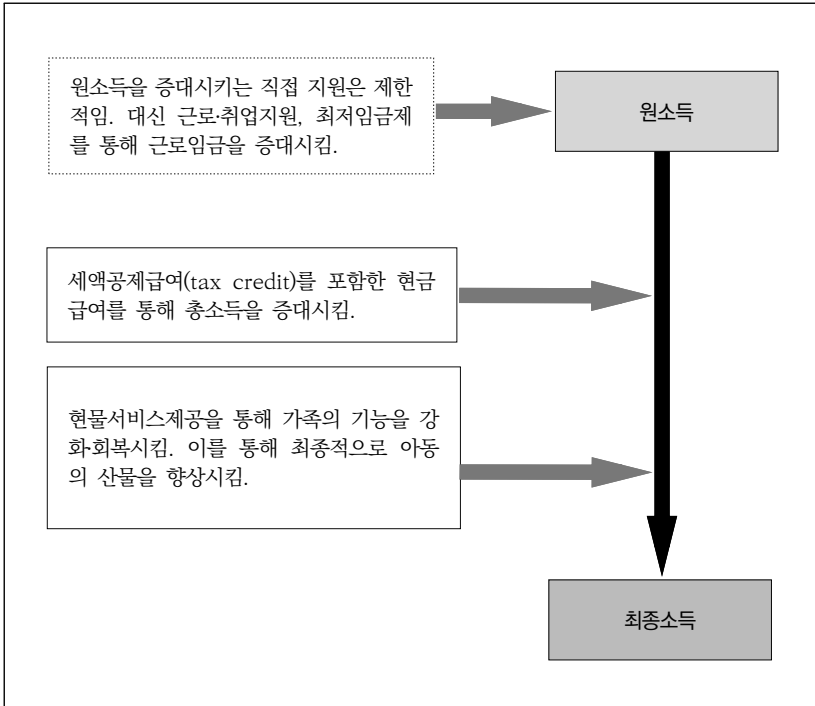
아동가족복지지출은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가 포함되며, 현물서비스에는 보육 및 가사서비스, 기타 현물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OECD, 2012; 이주연과 김미숙, 2013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현금급여에는 한부모가족수당, 위탁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발달계좌 등이 포함된다. 현물지원에는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돌봄, 요보호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김미숙 외, 2012). 결국 현금급여의 대상이 대부분 선별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복지 수혜층이 국한되어 있기에 지출규모와 비중 역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금의 현물서비스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현금급여

부문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지출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아동빈곤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HM Treasury, 2008).

[그림 5-4] 현물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연계를 통한 아동빈곤 개입전략



자료: HM Treasury(2008).

일차적으로 빈곤아동가족의 원소득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못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어려움을 선결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근로동기부여, 취업지원확대, 최저임금제 강화를 통해 근로활동으로 유인하여 간접적으로 원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한 근로장려금과 같은 다양한 세액공제급여(tax credit)를 통해 근로소득과 함께 총소득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대개 빈곤가족의 가구주는 근로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해 현재의 사회복지급여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결국 근로활동관련 세액공제급여가 수반되지 않은 근로활동지원정책은 빈곤가족들의 근로활동 참여를 기대한 만큼 가져오기 힘들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금과 같은 세액공제급여를 통해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공제하고, 아동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소득의 감소보다는 증대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현물서비스를 통해 빈곤가족의 아동이 가구주의 근로활동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부정적인 발달산물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곤아동과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또다른 구매력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바우처방식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기능 강화회복과 아동발달산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가족 부모와 아동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빈곤아동의 발달산물이 향상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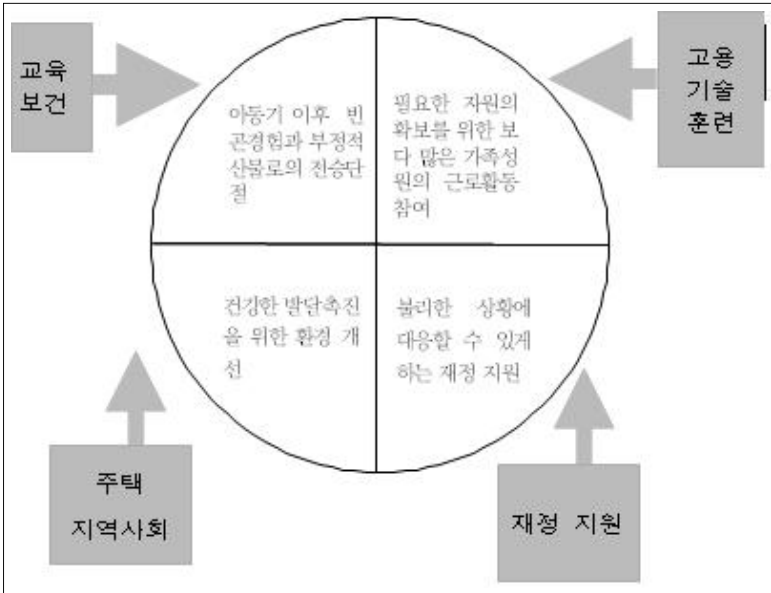
4. 빈곤감퇴 모형과 인적자본 개발모형의 동시추진 필요

OECD국가의 아동빈곤정책은 크게 부모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일자리 전략(work strategy)와 가족급여의 적정성을 끌어올리는 급여전략(benefit strategy)으로 구분된다(Whiteford & Adema, 2007). 호주,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일자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한

국, 일본,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 등의 국가는 가족급여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선택한 전략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아동빈곤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마법탄환(magic bullet)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두 가지 전략을 유연하게 결합하여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전략만을 통해서서는 부모의 근로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돌봄의 공백을 메꿀 수 없고, 가족급여전략만으로는 근본적인 소득의 증대를 피하기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아동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결핍뿐만 아니라 발달촉진에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한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5-5] 아동빈곤퇴치를 위한 기본전략



자료: Child Poverty Unit(2009).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아동빈곤 퇴치전략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Child Poverty Unit, 2009). 우선 아동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빈곤가족의 비근로활동 가족성원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활동 동기부여와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같은 고용관련 직업기술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을 포함하여 다른 가족성원의 돌봄부담이 큰 한부모가족과 빈곤가족을 위한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육의 부담감소, 가족 내 장애 및 질환을 가진 구성원의 돌봄지원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빈곤가족은 부모의 근로활동참여를 통해 소득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빈곤가족의 아동자녀가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보건, 가족체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의 개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재정지원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5-6] 빈곤아동정책의 통합적 추진접근



이상과 같은 다차원적인 접근을 정리하면 크게 2개 모형의 통합적이고 동시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지원, 근로활동지원을 통한 직접적 빈곤감퇴모형(poverty reduction model)과 빈곤가족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정서발달 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치유를 위한 전문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인적 자본개발모형(human capital)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Alber et al., 2012).

5. 빈곤의 직간접적 악영향 차단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빈곤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기 자체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등 전반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생애 발달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연진 외, 2013). 따라서 빈곤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연진 외, 2013). 우선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저체중 및 빈혈, 고혈압이 많으며(김혜경 외, 2007), 간기능 저하의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다(조경미, 2009). 청소년기에는 흡연, 음주, 임신 등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Alaimo et al., 2001). 이처럼 빈곤아동의 성장발달과 건강상태가 위협받는 이유는 빈곤가족의 부모가 적절한 아동양육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의 공백을 메꾸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학업부진과 학교중도탈락률이 더 높으며(장명림 외, 2009), 학교적응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안병철, 2007).

또한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박현선, 2008), 불안, 우울감, 공격성 등 사회·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신인순, 2012; 이완정 외, 2009; Gershoff et al., 2007).

결국 빈곤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인기에서의 자립과 적응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는 빈곤의 세대전승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빈곤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한 부모가족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교육·문화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낙후지역의 빈곤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취약가정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정서발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고위험군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해밀, 두드림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주무부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적인 정책의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제3절 소결

첫째, 아동빈곤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 아래 선명하고 강력한 정책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수립예정인 아동복지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추진된 빈곤아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빈곤정책실행자와 일선서비스제공기관 및 실무자간에 공유될 수 있는 선명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영국정부가 추진

한 2020년까지 아동빈곤율 5%대 감소와 같이 특정한 시한을 두고 구체적인 아동빈곤율 감소를 내세운 아동빈곤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게 실행되는 아동빈곤정책이 단일한 정책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평가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아동빈곤정책의 추진모형이 필요하다. 아동빈곤이 야기하는 문제는 복합적이다. 소득의 결핍, 물질적, 교육적 자원의 결핍, 정서발달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부적응 등 복합적인 아동빈곤의 표적문제를 모두 관통시킬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빈곤이 가져오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이 선택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 추진모형이 필요하다.

근로활동지원, 직업기술훈련,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근로연계 소득지원을 확대시켜 빈곤가족의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빈곤감퇴모형과 함께 빈곤가족 아동의 부정적 발달산물과 부적응문제에 대한 조기예방 및 개입서비스, 교육성취도 향상과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서비스 등 인적 자본개발모형을 동시에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균형 잡힌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OECD국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재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 OECD국가 평균수준의 지출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아동빈곤율의 감소를 위해서는 현물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재정원천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아동빈곤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일정 정도 감소되는 효과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구성에서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현금급여와 빈곤가족의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현물서비스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물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구조는 아동빈곤의 확대를 억제시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확충시킬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빈곤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동빈곤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아동빈곤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정책별 성과를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통합적 지원은 힘든 실정이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아동빈곤정책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관제탑(control tower)이 부재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정부 부처간 정책집행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최일선 기관 간에 연계보다는 불필요한 경쟁과 견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조직 단위에서 정책조정기구의 운영을 강화하고, 차선으로는 개별지역단위에서 아동빈곤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 전달하는 시설 또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빈곤아동을 포함해 요보호아동층의 인구학적 변화는 전통적인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아동인구의 감소,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의 유사가정보호의 증대에 따라 부모와 분리된 생활시설에서의 보호에 치중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점차 그 역할의 비중이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적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아동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역할을 재정립하는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아동전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존재하지만, 이들

시설은 선별적 복지체계에서의 작동기제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시대에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 전달체계는 부재하다. 이에 아동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이용시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비스제공방식의 다양화와 아동기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대상의 사업은 전체사업 중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97억원(59.4%)에 달한다. 여기에 다문화가족사업을 포함하면 아동가족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3%, 예산비중은 62.9%로 늘어난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아동가족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가족 및 아동의 욕구와 선택권에 기반한 개별화된 맞춤형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기(0~5세), 아동전기(6~12세), 아동후기(13~18세) 등 아동발달단계별로 대응필요도가 높으면서 정책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전, 바우처를 통한 전문적 사회서비스구매, 가족친화적 돌봄서비스 등이 아동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분화된 아동생애주기별 핵심서비스 제공목록을 수립하여 대상별로 효과적인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아동빈곤정책의 성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0~5세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아동복지의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도입과 초기실행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도입된 보

편적 아동복지의 방향은 이제 돌이킬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영유아에 해당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진출을 촉진시켜 가구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최소한 아동빈곤 위험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수당을 통한 아동빈곤을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전망이 존재하지만(이주연과 김미숙, 2013), 보육수당의 도입에서 출발한 보편적 아동복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아동기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복지확대에 따른 차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빈곤문제의 감소와 관련하여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what's next)?’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의제선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확보 및 정책효과성의 문제로 입법과정에서 좌초되었지만, 이혼·별거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도(Advanced Payment)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당장의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아동복지 정책의제의 검토와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은 현재의 20%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곧 미래의 100%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이론적 함의

제3절 정책적 함의

6

결론 및 제언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빈곤이라는 현상을 잘 나타내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여 빈곤집단을 규명 및 유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빈곤집단 유형화를 위해 잠재집단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상의 박탈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 할 경우,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빈곤 집단의 경우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나머지 한 집단은 비빈곤 집단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빈곤집단은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며 두 번째 빈곤집단은 다차원적 박탈집단이다. 주거비 과부담집단의 특징은, 소득과 자산이 비빈곤 집단과 차이가 없으나 주거와 관련된 지출 부담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 경험 낮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집단은 집단명에서 보듯이, 여러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고용상태는 불안하며, 월세에 살며, 주거와 관련한 생활환경은 열악하며, 식생활 영역에서의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잠재집단 간에 속하는 가구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특성과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변인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 개의 잠재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 특성 및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뉜 빈곤집단은 그 특성으로 인해 각 집단에 속한 아동발달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빈곤집단과

아동발달과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제약조건들로 인해 각 집단별 아동발달 및 아동양육환경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인지 발달 영역에서는 다차원박탈집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정서 영역에서는 비빈곤집단이 약간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교육참여나 지도감독과 같은 양육환경은 다차원박탈집단이 가장 낮고 비빈곤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비빈곤집단이 다차원박탈집단보다 더 높은 것은 특이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논의된 것으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빈곤집단에 따른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일반화에 주의를 요해야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샘플인 3차 아동부가조사의 아동이 특정 영역(예를 들면, 소득빈곤)에서는 질적으로 비슷한 아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인지영역과 부모의 교육참여 및 지도감독영역에서는 다차원박탈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빈곤대응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명확한 목표제시가 부족했다. 둘째,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복지비 지출의 규모가 매우 작아, OECD 국가의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빈곤을 위한 정책개입은 소득중심전략 이외에도 인적자본개발모형과 동시에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이 선택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 추진모형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 사회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제2절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소득기반의 빈곤측정에 대한 대안으로 빈곤아동 가구가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포착할 수 있는 생활상의 박탈을 이용하여 빈곤집단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빈곤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지만 빈곤집단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집단이 있다. 특히 주거비 과부담집단의 경우에는 중간소득 계층으로 까지 범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 가구는 빈곤집단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빈곤연구의 대부분은 빈곤집단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집단이 하나의 빈곤집단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빈곤집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외(2012)의 연구는 아동이 없는 가구를 포함하여 빈곤집단의 이질적인 특성들을 밝히고 있다. 이현주 외(2012)의 연구는 근로능력과 의료박탈 및 의료비 과부담과 같은 차원에서의 박탈이 빈곤집단을 유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밝히고 있으며, 식생활 영역에서의 지표는 의미 있는 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빈곤집단을 규명하는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근로능력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가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가구는 아동이 있는 가구보다 근로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가 빈곤집단을 과대표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빈곤가구는 과소추정 되어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아동빈곤율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아동가구가 다차원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면서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이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아동빈곤 대응정책들을 검토하여 빈곤아동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정책적 함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박탈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아동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빈곤아동가구를 과소 추정했음에도 높게 나온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율의 다차원 박탈집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을 사용하여 빈곤율을 낸 비율보다 높다 나왔다는 점은,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빈곤집단을 규정해 왔던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만으로는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집단들 중 일부는 빈곤집단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 관련한 정책들의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타 프로그램들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빈곤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소득 뿐 아니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보들을

이용한 방안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욕구중심의 빈곤정책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는 추후에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주요한 빈곤정책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이 생활상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통합되어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게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료 지급을 위한 소비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주거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다차원 박탈 집단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욕구는 식생활 분야에서의 소비보다 우선순위보다 낮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생활 영역의 욕구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의 빈곤정책보다는 각 영역과 관련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한 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류된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가구주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것은 노동 시장에서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상의 박탈을 해결하기 어렵다. 둘째,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셋째, 가구 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거나, 가구 내 만성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를 받아야 하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경우에는 잠재집단에 따른 가구의 특성 차이 분석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다차원 박탈집단의 경우에, 가구원 수가 높으며, 가구주의 건강상태 또한 다른 집단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빈곤 집단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차원 박탈집단 보다 높은 소득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빈곤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소득과 자산이 빈곤 집단과 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주거와 관련한 비용 지출이 높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면, 주거와 관련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서 기타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지출 수준이 빈곤 집단보다 낮을 수 있다. 다른 영역에서의 지출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축이나 자산 축적과 같은 활동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가구내 저축이나 자산은 아동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현재의 주거와 관련한 정책들은 주거의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정책은 장기적 목표가 부재하다. 따라서 2013년에 수립예정인 아동복지기본계획과 함께 빈곤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아동빈곤문제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교육·문화적 자원의 결핍 등의 다차원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통합적

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빈곤정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서는 개별지역단위에서 아동빈곤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전달하는 시설 또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함의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의 경우, 빈곤가구를 과대 포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가구 및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은 과소 추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아동빈곤의 특성을 탐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동의 관점에서 빈곤이라는 현상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가구가 경험하는 빈곤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 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pp.83-98.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 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pp.5-32.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pp.57-79.
- 김광혁(2003). 빈곤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0, 109-125.
- _____ (2006).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1, pp.195-217.
- _____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pp.115-138.
- _____ (2010).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조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아동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pp.35-65.
- 김기환(1997). 아동의 빈곤화 현상과 아동복지의 방향. 연세사회복지연구, 4, pp.3-30.
- 김문길, 김태완, 우선희, 이서현(2012). 2012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정익중, 이주연. 하태정(2012).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최현수, 홍미, 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위정, 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pp.1-36.

김은정(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91(2013-21).

김지혜, 정익중(2010). 빈곤은 인터넷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부모의 지도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pp.29-56.

김태성. 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김효진(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39(5), pp.33-42.

박문수, 하성규(2000).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 달성방안. 대한주택공사

박병현, 최선미(2001). 사회적 배제 및 하층계급의 개념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pp.185-219.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pp.113-137.

변금선(2012). 아동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브리태니커. (2013). 빈곤의 정의. <http://www.britannica.co.kr/>에서 2013.6.20. 인출.

신명호 (2003). 사회적 배제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신인순(2012). 빈곤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50(4), pp.115-125.

안병철(2007).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 성취 불균등도 평가. 경제연구, 25(2), pp.21-38.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김수정, 구인희, 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혜, 김정일(2009). 학업수행 부진에 부모빈곤이 미치는 영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0(4), pp.57-68.
- 이상은(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pp.53-76.
- 이완정, 권혜진, 양성은(2009). 아동 빈곤. 아동학회지, 30(6), pp.337-347.
- 이재열 외(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주연, 김미숙(2013). OECD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pp.90-103.
- 이태진, 정홍원, 강신욱, 김진수, 김태완, 남상호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육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55-78.
- _____(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명림, 김은영, 이정림, 김수연(2009). 교육 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장혜림, 정익중(2012). 빈곤과 가족구조 결손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37, pp.111-142.
- 정익중(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pp.113-128.
-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11). Wee프로젝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한국복지패널 6,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서

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87-210.

Abel-Smith, B. & Townsend, P. (1965). *The poor and the poorest, occational papers on social administration*, 17. London: Bell and sons.

Alaimo, K., Olson, C. M., Frongillo, E. A., & Briefel, R. R. (2001). Food insufficiency, family income, and health in U.S. preschool and school-ag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5), pp.781-786.

Alber, L., Morris, P., & Raver, C.(2012). Children, Families and Poverty: Definitions, Trends, Emerging Scienc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Social Policy Report*, 26(3), pp.2-24.

Alkire, S. (2007). The missing dimensions of poverty dat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xford Development Studies*, 35(4), pp.347-359.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_____ (1993). *Human capital*. Chicago: Univ. Chicago Press.

Bradley, R. & Corwyn, R.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pp.371-399.

Bradshaw, J. & Richardson, D. (2008). Does child income poverty measure child well-being internationally? *Social Policy & Society* 7:4, pp.521-536

Brooks-Gunn, J. & Duncan, G. J.(1997).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pp.55-71.

Child Poverty Unit(2008). *Ending child poverty: Making it happen*. London: Crown.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pp. 288-310.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pp.526-54.
- Corcoran, M. (1995). Rags to rags: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pp.237-267
- _____ (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21(2)*, pp.16-20..
- Dewilde, C. (2008).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A European comparis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2)*, pp.233-256
- Dewilde, C. (2004). The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poverty in Belgium and Britain: A categorica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68*, pp.331-369
- Doyal, L. and Gough, A. (1991). *A Theory of human need*, Macmillan, London.
- Duncan, G. and Brooks-Gunn.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pp.296-318.
- Duncan, G. J., Magnuson, K. Kalil, A., & Ziol-Guest, K.(2012). The

-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poverty. *Social Indicator Research, 108*, pp.87-98.
- Duncan, G. J., Yeung, W. J., Brooks-Gunn, J., &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3)*, pp.406-423.
- Duncan, G. J., Ziol-Guest, K.,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pp.306-325.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pp.70-95.
- Goedhart, T. et al. (1977). Then poverty line: Concept and measuremen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12*, pp503-520.
- Hills, J., Le Grand, J. & Piachaud, D(ed.) (2002).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ch, D. (2006). *What will it take to end child poverty?*. York: Joshep Rowntree Foundation.
- HM Treasury. (2008). *Ending child poverty: everybody's business*. London: Crown.
- Johnson D.S. & Smeeding T. M. (2012). A Consumer's guide to interpreting various US poverty measures, *Fast Focus No. 14-2012*. pp. 1-7.
- Kleinhans, R., R. Priemus & G. Engbersen(2007),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in recently restructured urban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4(5)*, pp.1069-1091.
- McCutcheon, L. A. (1987) *Latent Class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McLoyd, V.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pp.185-204.
- Mimura, Y. (2008). Housing cost burden, poverty status, and economic hardship amo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 pp.152-165.
- Nolan, B. & Whelan, C. (2010) Using non-monetary deprivation indicators to analyz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essons from Europe? *Journal of Analysis and Management*, 29(2), pp.305-325
- Orshansky, M. (1965). *Counting the poor: The big trade 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titution.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 Castalia.
- Perez-Maya, J. (2005) Identifying deprivation profiles in Spain: A new approach. *Applied Economics*, 37(8), pp.943-955.
- Pruay, V. et al. (1980). The poverty line-a pilot survey in Europ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pp.461-465.
- Rainwater, L., et al. (1974). *Income Packaging in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Income*, Oxford: Clarendon Press.
- Robeyns, J.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pp.93-114
- Rowntree, B.S.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Sauders, P. (2004). Towards a credible poverty framework: Form income poverty to deprivation. *SPRC(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Discussion Paper*, 131.
- Sen, A.(1979).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overt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81(2), pp.285-307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London Press
- Smith, J. R., Brooks-Gun, J. & Klebanov, P. K.(1997). Consequences of

-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Y: Russell Sage Foundation.
- Solera, C. (2003).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What do we know?(pp. 527-546). In Koen Vleminckx, and Timothy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Briston: Policy Press.
- Sauders, P. (2004). Towards a credible poverty framework: From income poverty to deprivation. *SPRC(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Discussion Paper*, 131.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llen Lane.
- Uniceff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0,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Whiteford, P. & Adema, W.(2007).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 Wilson, W. J.(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IL: Univ. Chicago Press.

부록 <<

〈부표 1〉 아동이 없는 가구의 특성

| 구분 | 아동이 없는 가구 (N=4,123) |
|--------------------|------------------------|
| | 비율 및 평균 (SD) |
| 고용형태 | |
| 임시일용자활사업 | 21.0 |
| 비경제활동 | 32.7 |
| 고용주, 자영, 무급 | 21.9 |
| 상용 | 24.4 |
| 근로능력 | |
| 근로불가능 | 0.8 |
| 미약, 단순근로 | 15.9 |
| 근로가능 | 83.3 |
| 주거소유 | |
| 월세 | 20.9 |
| 전세 | 15.2 |
| 자가 | 55.1 |
| 기타 | 8.8 |
| 주거비 과부담 | |
|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 이상 | 16.8 |
| 주거생활 박탈 | 4.4 |
| 교육비 과부담 | |
| 교육비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 | 5.8 |
| 의료박탈 | 2.4 |
| 의료비 과부담 | |
|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 | 9.3 |
| 신용불량가구원 | 5.2 |
| 순자산(만원/년) | 25,488 (41,671) |
| 가처분소득(만원/월) | 301 (251) |
| 상대빈곤 | |
| 상대빈곤 : 중위소득 40% 미만 | 17.2 |
|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 미만 | 23.8 |
| 상대빈곤 : 중위소득 60% 미만 | 30.6 |
| 식생활박탈 | 7.3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발간번호 |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3-01 |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 김남순 |
| 연구 2013-02 |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김혜련 |
| 연구 2013-03 |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 김대중 |
| 연구 2013-04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 윤강재 |
| 연구 2013-05 |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 정기혜 |
| 연구 2013-06 |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 김정선 |
| 연구 2013-07 |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박은자 |
| 연구 2013-08 |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 신현용 |
| 연구 2013-09 |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 박실비아 |
| 연구 2013-10 |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김동진 |
| 연구 2013-11 |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 강희정 |
| 연구 2013-12 |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 원종욱 |
| 연구 2013-13 |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 강신욱 |
| 연구 2013-14 |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 남상호 |
| 연구 2013-15 |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김태완 |
| 연구 2013-16 |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 김문길 |
| 연구 2013-17 | 2013년 빈곤통계연보 | 임완섭/노대명 |
| 연구 2013-18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노대명 |
| 연구 2013-19 |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이현주 |
| 연구 2013-20 | 한국복지매일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 김미곤 |
| 연구 2013-21 |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 박세경 |
| 연구 2013-22 |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정홍원 |
| 연구 2013-23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김성희 |
| 연구 2013-24 |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 박수지 |
| 연구 2013-25 |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 박인화 |
| 연구 2013-26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고제이 |
| 연구 2013-27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신화연 |
| 연구 2013-28 |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유근춘 |
| 연구 2013-29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 정영철 |
| 연구 2013-30 |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 정은희 |
| 연구 2013-31-01 |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 이삼식 |
| 연구 2013-31-02 |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 이삼식 |
| 연구 2013-31-03 |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 신윤정 |
| 연구 2013-31-04 |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
| 연구 2013-31-05 |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 김미숙 |
| 연구 2013-31-06 |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여유진 |
| 연구 2013-31-07 |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 도세록 |

| 발간번호 |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3-31-08 |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 김유경 |
| 연구 2013-31-09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 이소영 |
| 연구 2013-31-10 |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 황나미 |
| 연구 2013-31-11 |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오영희 |
| 연구 2013-31-12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 외부위탁 |
| 연구 2013-31-13 |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 이삼식 |
| 연구 2013-31-14 |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 정경희 |
| 연구 2013-31-15 |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 이윤경 |
| 연구 2013-31-16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 윤석명 |
| 연구 2013-31-1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선우덕 |
| 연구 2013-31-18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 김진수 |
| 연구 2013-31-19 |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 정영호 |
| 연구 2013-31-20 |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외부위탁 |
| 연구 2013-31-21 |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 외부위탁 |
| 연구 2013-31-22 | 농촌 노인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 외부위탁 |
| 연구 2013-31-23 |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윤경 |
| 연구 2013-32-1 |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 서미경 |
| 연구 2013-32-2 | 건강영향평가(TWC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 최은진 |
| 연구 2013-33 |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 홍석표 |
| 연구 2013-34 |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 정은희 |
| 연구 2013-35 |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 이철선 |
| 연구 2013-36 |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오미애 |
| 연구 2013-37 |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송태민 |
| 연구 2013-38 |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 이상영 |
| 연구 2013-39 |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 김승권 |
| 연구 2013-40-1 |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이현주 |
| 연구 2013-40-2 |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 최현수 |
| 연구 2013-41 |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 최정수 |
| 협동 2013-1 |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 오영호 |
| 협동 2013-2 |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 이상림 |